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643호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홍성군 구항면 공장부지 조성현장 관리 '엉망'

공사현장, 민가와 인접해 사면이 붕괴될 경우 피해 우려… 군 "현장 확인후 강력한 행정 조치"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에 조성 중인 공장부지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와 비산먼지 관리가 엉망이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억지시설이 전무하고, 전 펜스가 없는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면은 붕괴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홍성군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사현장이 민가와 인접해 사면이 붕괴될 경우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홍성군 안전 총괄과 관계자는 "공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하지 않은 경사면은 비로 인해 경사면에 물홈통이 발생해 폭우가 내릴 경우 붕괴 발생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 현장처럼 70도에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사면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토사밀림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공사의 기본인 방진벽과 분진 막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기간 동안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안전펜스와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흡한 이 곳 공사 현장은 21번 국도와 인접해 운행 중인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빼앗아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법률에는 개발행위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준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현재 이 공사는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A사가 구항면 마온리 154-12번지(9.542㎡) 외 5필지를 2017년 5월4일 홍성군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비산먼지 억지시설이 미흡 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한기자

국민의당 새 대표에 안철수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됐다.

안 신임 대표는 27일(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인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 후보를 누르고 과반인 51.09%를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안 후보는 총투표수 5만6천953표(온라인 4만2천556표 · ARS 1만4천397표) 가운데 2만9천95표(51.09%)를 얻었다. 이언주 후보는 2천251표(3.95%), 정동영 후보는 1만6천151표(28.36%), 천정배 후보는 9천456표(16.6%)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5 · 9 대선 패배로 박지원 전 대표가 물러난 지 110일만에 국민의당에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게 됐다. 이와 함께 5 · 9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안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여 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는 장진영 박주원 후보가 선출됐다. 또 여성위원장에는 박주현 후보, 청년위원장에는 이태우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에 선출된 지도부 가운데 원내 인사는 박주현 여성위원장이 유일하다.

김정환기자

대전시 '숲속의 열린음악회' 성료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숲속의 열린음악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행사로 3일간 1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여름밤의 정취와 낭만을 즐겼다.

지난 25일 대전시립교향악단(지휘 류명우)의 폴 포츠, 강혜정 등의 협연과 해설이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을 시작으로, 26일 오후에는 대전아트오케스트라(지휘 윤성규)의 연주로 포크가수 유익종과 소리새, 대전이 낳은 바리톤 스타 박상돈 등이 출연하여 감미롭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같은 날 저녁에는 해군군악대(지휘 조동민)와 해군의장대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포함하여 뮤지컬 스타 남경주의 열정적인 무대가 이어졌다.

27일 마지막 공연은 매력적인 음색의 결정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지휘 공우영)의 연주로 뮤지컬 배우 홍지민, 국가대표 바리톤 고성현,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과 국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보여 보문산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으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여름밤을 선사했다.

시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문산은 대전시민의 추억과 향수가 깃든 장소"라며 "앞으로 보문산 숲속공연장 야외무대에서 문화를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 문재인 대통령 만나

행안부-과기부 이전 · 총리 독립청사 건축 등 건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시장은 2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시급하다."며 "총리의 위상을 감안하여 독립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곳에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등 총리실 직속 및 산하 기관을 함께 입주시키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청사 신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이 이전하면 우선 민간건물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시장은 "청사를 지을 공공용지가 80여만 평이나 있고, 호수공원 및 수목원과 인접한 곳은 총리실이나 국회분원을 건축하기에 안성맞춤이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 현장방문도 동행했다.

이정복 기자

국민들 식품안전 국내산 신뢰 크게 하락

국내산 58% · 호주-뉴질랜드72%에 뒤져… 미국산47%

한국갤럽이 원산지별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여파에 국내산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호주 · 뉴질랜드 수입식품보다도 안전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중국산, 미국산, 호주 · 뉴질랜드산 수입 식품과 우리나라 국내산 식품 각각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보는지,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은 호주 · 뉴질랜드산 72%로 가장 높았고 국내산은 58%, 미국산 47%, 일본산 25%, 중국산 7% 순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국내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이 75%에서 58%로 감소해 최근 살충제 검출 계란 파문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호주 · 뉴질랜드산은 70%에서 2%포인트 상승했고 미국산은 40%에서 7%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일본산의 경우 2013년 6%만이 안전하다고 답했으나 이번에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파문 등은 지금까지도 여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4년 전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완화된 듯하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산의 경우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왔다.

요즘 계란을 먹는 것이 꺼려지는지 물은 결과 54%가 '꺼려진다',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성의 65%는 계란 취식에 거부감을 보였으나, 남성은 그 비율이 42%로 낮았다. 선행 질문에서 국내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의 71%. 안전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서도 44%는 요즘 계란 먹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2014년 초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던 당시 정부는 '국내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 익힌 고기는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닭 · 오리 고기 판매는 급감했다. 그해 2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37%가 '닭 · 오리 고기 먹기가 꺼려진다', 5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때도 여성 49%, 남성 25%가 닭 · 오리 고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뽑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 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이정복 기자

충청권 4개시 · 도, 상생협력 공조방안 등 논의

2단계 조기건설 등 8건 행정협의회서 채택 추진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등 4개 시 · 도 기획관리(조정)실장으로 구성된 충청권 실무협의회가 24일 충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4개 시 · 도 기획관리(조정) 실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안) 심의, 2018 연구용역 추진방향 결정, 제26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안건 협의, 2017년도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2018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억 4천만 원으로 4개 시도에서 35,000천 원 씩 균등 분담하여 편성한다.

2018년도 용역사업은 그동안 한정된 예산(1억원)으로 여러 건을 실행하던 것을 4개 시 · 도 상생협력 취지에 맞는 용역 1건(예산 1억원)을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건설 등 8건이 시 · 도에서 제출되어 다음달 열릴 예정인 행정협의회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건설, 대덕특구~세종시(연서면) 일원 광역도로 연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이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등이며, 충남도는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생태복원클러스터 조성,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월에 열린 2차실무회의에서 제안된 충청권 공약사업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부분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공조체계를 통해 충청권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한국갤럽]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79%, 5주연속 70%대 후반

민주당 46%, 한국당 10%-정의당 8%-바른정당 7%-국민의당 5%

한국갤럽이 8월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같이 나왔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14%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3%).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5주 연속 긍정률 70% 후반, 부정률 1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8%/8%, 30대 89%/7%, 40대 86%/9%, 50대 72%/18%, 60대+ 65%/22%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망이 90%/3%로 문 대통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대구/경북이 67%/2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지지층에서 90% 선이며 바른정당 ·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약 7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62%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긍정률보다 부정률이 높아 38%가 긍정, 45%가 부정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90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2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퇴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8%), '공약 실천'(4%),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3%),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부정 이유로(137명, 자유응답) '과도한 복지'(17%), '북핵/안보'(11%), '보여주기식 정치'(11%),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7%), '인사 문제'(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46%, 한국당 10%, 정의당 8%, 바른정당 7%, 국민의당 5%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8%, 바른정당 7%, 국민의당 5%, 없음/의견유보 25%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바른정당은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정의당은 3%포인트가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선 직후부터 두 달간 48% 이상, 최근 5주간은 46~50%로 진폭이 약간 커졌다.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평균 11%, 그 외 야당들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이번 주에 1%포인트가 증가한 25%로 대선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뽑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개강식 … 8주간 정치 트레이닝 돌입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이 24일 정치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본격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정치아카데미에는 내년에 있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지망생이 대거 모여 당초 계획한60명 정원을 넘어 최종 85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어기구 의원, 명단 공개범위 1년 경과 2억 원 이상에서 1년 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25일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현행 1년 경과 2억 원 이상에서 1년 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세 미수납액은 2013년 19조 2,000억 원에서 2016년 31조 5,000억으로 대폭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단 공개 범위도 함께 강화되어왔다.

체납액 명단 공개 범위는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에서 2017년에는 1년 경과 2억 원까지 확대되었는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도 함께 증가해 2004년 170명, 397억 원에서 2015년 7,916명 8,111억 원으로 약 46.6배와 20.4배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체납 발생 억제 효과와 체납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체납자의 잠재적 탈세 심리를 억제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성일종 의원 "한국형 치매 대책 모형 제시할 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 · 태안)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대비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를 주제로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안"이라며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무조건 위기로만 보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한국형 치매 관리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권태엽 원장은 한국형 치매 모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기용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하정화 서울대학교 교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이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치매정책 모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복건복지부, 보건사회연수원,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한기자

충남도의회, 제298회 임시회…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0개 주요 도정 및 교육행정 과제 및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1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5분 정책발언, 상임위별 현장활동 등을 예고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총 11명의 의원이 40건(도정 28, 교육행정 12)의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사안 등에 대해 송곳 질문을 할 예정이다.

김종문 의원(천안4)이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과 해결 방안,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의 시행 태만에 대해 질문한다.

이공휘 의원(천안8)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정체성과 대표성 회복을 위한 개선책을, 이기철 의원(아산1)은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홍열 의원(청양)은 도교육청의 농어촌 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 김연 의원의 경우 문화재단 주요 사업과 복지반장 사업 등을 질문한다. 유병국 의원(천안3)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인한 농가 대책을, 김응규 의원(아산2) 역시 국공립유치원 확충 현안 문제를 진단한다.

이밖에 ▲동물 방역 문제(송덕빈 의원) ▲가뭄과 집중호우 대비책 마련(홍성현 · 정광섭 의원) ▲작은 학교 살리기 시급성(전낙운 의원) 등이 질문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와 별개로 지역 현안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접목하는 상임위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스포츠센터와 구드래 역사마을, 장항제련소 등을 각각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정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성시열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근본대책 필요

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촉구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은 2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8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이 전국 112%, 충남도 9.1%, 아산시 11.4% 등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 24일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축사 내 관리사의 면적을 33㎡이하로 제한하는 농지법 규정, 축사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거 · 하천부지의 까다로운 매각조건과 축산농가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법화 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했다. 첫째, 실무부서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 요청.

둘째, 입지 제한지역내의 축산농가들에 대한 구제 및 적법화 추진방안을 마련 요구

셋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요령 및 추진절차 등 사전교육과 표준설계도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 필요, 넷째,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다섯째, 33㎡를 초과하는 관리사의 면적 규정 완화, 하천 · 구거의 매각 규정 완화 등 법령개정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 덧붙여 축산 농가주께서도 아산시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을 호소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아산시 해당 축산농가들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 농학석사 취득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대산.지곡.성연)이 25일 공주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김희수 총장 직무대리로부터 농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이 대학 식물자원학과를 졸업한 장 의원은 농업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자 곧장 산업과 학대학원 작물학 전공에 입학했다. 의정활동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2년 6개월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위를 받게 됐다.

장 의원은 2012년에는 농업인 전문 교육기관인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친환경 경종과정 4년을 수료하기도 했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장 의원은 농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평소 농업인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으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장 의원은 "농업이 어렵다지만 분명히 살 길은 있다."며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려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의 전문성 함양을 강조하며, 자신의 학위 취득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선생 국회 전신상 건립 추진

양승조 의원, 국회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 국회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25일 초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이셨던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국회에 전신상으로 건립하는 국회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 정통성과 역사적 뿌리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본청 현관(로텐더홀)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였던 이동녕(李東寧) 선생의 흉상을 1996년 건립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李承晩) 박사와 제2대 국회 의장 신익희(申翼熙) 선생의 전신상 동상도 2000년 건립하여 함께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의장이였던 이승만 박사와 제2대 국회의장이셨던 신익희 선생의 동상은 전신상으로 건립되어 있는 반면에,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였던 이동녕 선생의 동상은 흉상으로 건립되어 있어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동녕 선생은 1869년 출생(충남)하여 이회영, 장유순 선생님과 함께 신흥무관학교의 모체가 되었던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통합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통령 대리 · 국무령 · 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의회지도자상의 추천은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하여 광복절 하루전인 8월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친전으로 협조요청을 보냈고, 현재 30인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료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건립의 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친지 · 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여 놓은 것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아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회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제196회 임시회가 25일,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8건의 조례안 심사 및 승인,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안영 의장은 "지난여름 가뭄과 호우로 인한 현장복구에 노력해 준 동료의원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밀접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소홀함이 없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기애 의원의 '아산시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성시열 의원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근본대책 필요', 조철기 의원의 '아산시 장애인 직장 체육팀 창단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8월 23일 박성순 의원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해 이영해 의원이 선임 되었고, 지난 지난 17일, 박성순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직 사임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결과 재적의원 15명중 15명 출석해 출석의원 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를 득표한 김희영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김희영 신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최고이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유기준 의원과 조철기 의원이 선출됐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됐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고 예산법무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현인배 의원, 김영애 의원, 황재만 의원, 유명근 의원, 안장헌 의원, 유기준 의원, 이영해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 건을 상정해 9월 4일 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9월 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가결한 후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

구미경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지역 정치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 개선에 가장 앞장서 왔다. 특히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힘썼다. 그 결과 올해 대전장애인정책포럼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구미경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제 7대 대전 시의회가 개원 3년을 맞았는데요 소회 한말씀 해주세요.

제게는 3년의 시간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살아온 삶의 연장선 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삶에 비빌 언덕이 되어야겠다는 신념과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이며 양심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고, 특히 현장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 다문화 극빈층,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린이들은 학교와 병원이 부족하여 비장애인이 누리는 교육과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3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신탄진 용호 분교에 가칭 행복학교를 설립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결국 이루어 냈고, 그동안 어린이 재활 병원과 시립 병원 설립 추진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대전지역에 현안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대전엔 현안이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많습니다. 우선 일몰제에 의해 월평공원외 다수가 2020년도에 사유지가 되는데요 국가가 매입하여 국가공원화 하는 문제가 크구요. 대전 시민이 매일 산에 오르고 소통하고 즐기는 공원을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체계적 개발이 필요 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협의가 필요 합니다.

또 하나는 서구 구도시에 속하는 도마동, 변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변동, 도마동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10여년 동안 지연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이 구체화된 도마변동 11구역과 8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계획되로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저 또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 왔고 여성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이 상상 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목격한 후로 내 삶을 바쳐 장애인의 대모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대표로 10년간 활동 하면서 법의 틀 안에서 수많은 벽에 부딪히던 저는 한 걸음 나아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고 저를 지켜보던 장애계 약사회 여성 단체의 지지로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로 지역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님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많은 시민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같이 활동을 해야 또한 해결 방안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22명의 의원 중 조례발의건수 27개로 세 번째로 많으며, 간담회, 토론회, 시정질의 건수 또한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에 집중해 왔고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대전 북부 지역에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특수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 했고, 신설학교 부지로 폐교 상태인 신탄진 용호 분교로 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으로 올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선물을 받듯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마침내 2020년 개교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회의 기구입니다.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예산의 하향식, 내려주기식의 집행은 자치 실현을 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지방 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합니다. 지방의회의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부정평가의 대부분이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능력있는 직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의회에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정책연구 · 입법지원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과 더불어 입법조사관 혹은 정책자문위원 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조직 및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년 지방선거에 선출직 도전을 이미 선언했고, 남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또한 늦게 시작 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직업학교와 어린이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난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일해 왔으며, 천성이 긍정적이라 항상 매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의 정치 소신은 "정치는 양심과 진리를 토대로 삼아야 하고 인간을 위한 이타적 봉사로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동 정●●●

2017년 하반기 학원장 연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8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열리는 '2017년 하반기 학원장 연수'에 참석.

하반기 평생교육인 연수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28일 오전 10시에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열리는 2017 하반기 평생교육인 연수 교육에 참석.

천사의 손길 기탁식

한현택 동구청장= 28일 오후 2시 구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천사의 손길 기탁식에 참석.

부사칠석문화제

박용갑 중구청장= 28일 오전 11시 부사다목적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2017 부사칠석문화제' 참석.

찾아가는 중년층 취업박람회

장종태 서구청장= 28일 오후 1시 10분 구청 로비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중년층 취업박람회'에 참석.

소원을 말해봐 사업 지정기탁식

허태정 유성구청장= 28일 오전 9시 30분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미트갤러리 「소원을 말해봐」 사업 지정기탁식에 참석.

관리방안 용역 최종보고회 주재

박수범 대덕구청장=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숲길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市, 추경예산 1716억 원 등 4조 2802억 원 예산편성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육성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보다 1,716억 원 증액된 4조 2,80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조 2,967억 원 보다 1,248억 원(3.8%) 증액된 3조 4,2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8억 원(5.8%) 증액된 8,58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628억 원, 국고보조금 285억 원 등 중앙지원금 917억 원과 시비 정산 반환금 215억 원, 연말까지 지방세 추가 징수예상분 200억 원(취득세 150억, 지방소득세 40억, 지방교육세 10억) 등 자체수입이 포함된 1,248억 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3일 이재관 행정부시장 주재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발굴된 사업 중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에 방점을 두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4억 원, 보육돌봄 보조교사 인건비 13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5억 원 등 시비 매칭분 45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을 선 반영했다.

일자리 정책 사업은 첫째,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인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는 3개월간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후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축하금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장기재직 유도 및 근로자 소득증대를 위해 매월 개인 15만 원, 중소기업 30만 원씩 5년간 가입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기업부담금의 50%인 15만 원을 대전시가 부담하기로 하여, 장기재직 근로자는 최대 2,7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고,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확대 지원 20억 원, 기술사업화 지원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도한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 60억 원, 소방차량 보강 8억 원, 소방통신망 장비확충 7억 원을 반영하고, 기후대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7억 원도 증액 편성했다.

그밖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4억 원,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 12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10억 원,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 조성 77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색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 일괄 해제됨으로 이를 대비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고밀도 정밀조사 용역 4억 원과 보상에 따른 녹지기금 5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조성했다.

한편,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4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9억 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전특별시 육성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동구, 주민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구민의 권익보호 위해 활동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청렴행정과 주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주민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구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와 동 주민 등 18명을 주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민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위법 · 부당한 행정처리 관찰 제보 ▲ 일선 공무원 부조리 신고 ▲ 반복 · 고충민원 공동조사 ▲ 주민센터 자체 감사기간 주민감사관 참여 등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

위촉식 종료 후 주민옴부즈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의 구성배경과 주요역할 등을 교육하고 향후 운영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강혁 부구청장은 "앞으로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줄 것과 다양한 구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동구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구민과 행정기관의 다리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주민옴부즈만은 동 주민센터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가양2동 주민센터 앞 집하장 악취발생, 판암1동 고속철도변 공사로 인한 건물파손 피해 보상 등 주민 불편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영호 기자

대전시농기센터, 곤충산업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다양한 지원 · 전문 인력 육성

대전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수)는 지난 25일 농업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대전곤충산업아카데미 교육 수료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시농업기술센터는 2016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특 · 광역시 최초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3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산업곤충사육기술, 곤충체험학습 및 6차산업화, 식용곤충의 상품화, 현장 견학, 우수농가 사례청취, 멘토-멘티 크로스코칭(Cross Coaching)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실시했다.

수료생 윤병덕(63)씨는 최근 8월 13일「대한민국창의발명대전」에서 인삼먹인 굼벵이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대전곤충산업아카데미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농업기술센터 박용수 소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전문 인력 육성으로 대전이 곤충산업 분야 거점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청장, 저소득 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감사패 받아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여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유성구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 취약계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성구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노령 · 신체적 장애 · 한부모가정 등의 사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작년에는 7656세대를 대상으로 546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한 김재경 공단 대전유성지사장은 "유성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매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본다"며 "건강보험제도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의료사각지대 없는 유성구를 만들어 구민 여러분이 소득과 형편에 관계없이 양질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송병배기자

평생학습 3학기 프로그램 운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평생학습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평생학습 3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인문 교양(18개) ▲전통문화(5개) ▲건강교육(13개) ▲음악 예술(12개) ▲전문자격(6개) 총 54개 과정이며, 탄방동 평생학습원과 관저문예회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 1월 개관한 서구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동안 총 97개 강좌에 1,8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으며, 매 학기 평균 2:1의 경쟁률을 보이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이끄는 요소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더 많은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중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25일 오전 8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부경찰서와 중구모범운전자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대전네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교통신호 준수, 정지선 지키기,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준수와 보행자에게는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를 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박용갑 중구청장은"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하는게 교통사고지만,교통규칙을 잘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청소년 직업체험 진행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매월 진행되는 정규토요체험에서 '나의 꿈을 찾아서' 주제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위캔센터'에서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직업체험관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직업인 방송국, 과학수사대, 뷰티숍, 법원 4가지를 체험하면서 직업을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청소년드림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방과후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진로지도, 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유성구, 제15회 한여름밤 마을축제 가져

"화합-소통 행복 전민공동체 조성"

유성구 전민동은 26일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근린공원에서 '제15회 한여름밤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전민동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종헌) 주관으로 열린 축제는 생활과학(드론, 수학페스티벌)과 야광팔찌, 다트게임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이 평소 준비한 댄스와 합창, 난타, 태권체조, 밴드공연 등이 펼쳐져 참가 주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지역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박종헌 전민동 마을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 개최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과 축제 추진 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민들이 화합과 소통하는 행복 전민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봉관 기자

대덕구, 구정홍보 강화 · 구민과의 소통채널 활성화

페이스북 활용 교육 실시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다양한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과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활용 교육에 실시했다.

구는 현재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 함께 희망대덕!!!' 밴드를 통해 여러 가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구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을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어 오고 있다.

이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하나로 블로그의 장점과 트위터의 장점을 모두 보유해 마케팅 효과가 큰 페이스북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교육에 참석해 현장에서 직접 구정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기술 및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 친구관리 등 운영 활용 방법, 홍보를 위한 글쓰기, 사진 및 동영상 포스트 방법, 지자체에서 SNS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으로 페이스북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실습을 병행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교육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통은 대덕구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며 "각종 행사 및 축제 홍보를 비롯해 유용한 생활정보, 정책, 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SNS 사용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공주시 '캐릭터산업' 키운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 관계자와 구마몬 초청 등 긴밀한 협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캐릭터 산업 활성화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 구마모토현과 구마몬 초청을 비롯한 캐릭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4일 일본 구마모토현 코나네마루 타게시 국제과장 일행은 공주시를 방문해 유병덕 공주부시장 등을 만나 구마몬이 제63회 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주 캐릭터박람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공주시와 구마모토현은 지역의 명칭에 곰이 들어가고, 캐릭터도 곰을 활용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캐릭터를 지역의 홍보와 경제 활성화 분야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흡사하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공주시 캐릭터 박람회에 구마몬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후에 실무협의와 막후 접촉을 통해 구마몬의 참여를 협의해 왔다.

양 도시는 이를 계기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구마모토현 캐릭터인 구마몬은 현재 현청의 부장 직위로 임명돼 현을 홍보하면서 현에서 생산되는 상품 등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마모토현 코나네나루 과장은 구마몬의 가장 큰 역할로는 한화로 연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들었으며, 이와 아울러 현재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행복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주시 유 부시장은 "공주시에서도 시 캐릭터인 '고마곰과 공주'를 공주시의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더 나아가 시민 행복수준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강 신관공원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국내외 유명한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여 전시와 이벤트 체험이 어우러지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병덕 부시장은 "캐릭터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에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공주시가 선두에서 캐릭터 관련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농협경제지주 경상권역 농산물 마케팅협의회 열려

아산시 농특산물의 경상권역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인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관내농협 조합장 및 각 농협의 경제책임자들과 경상권역의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부산, 반여, 창원, 북대구, 대구) 5개소의 사장 및 경매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산시는 지난 24일, 부산에서 '경산권역 농협경제지주 마케팅협의회'를 개최하고 아산시 농산물의 판매확대와 농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저변확대와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실질적 산지인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실무자들이 판매처인 경상권역의 농협계통공판장 관계자들과 아산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지지와 출하를 유지하기 위한 격의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권역(부산, 반여, 창원, 대구) 농협경제지주 공판장은 그동안 정가 · 수의매매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아산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판매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경상권역의 다른 공판장과도 정가 · 수의매매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어선=리량주기자

조폐공사 '2017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 선정

교육부 · 인사혁신처 공동 공인 정부 인증마크 획득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2017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으로선정됐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 · 인증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조폐공사는 서류 및 현장 등 2차례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 공인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조폐공사는 심사에서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능력중심 열린채용 및 성과목표 관리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여러 학습조직 운영을 통한 현장 개선활동 등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정부 인증로고를 향후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공사 이한빈 관리처장은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열린 일자리 채용과 직원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새마을금고 금융지원센터 KS서비스 인증 획득

금융지원센터 고객응답율 97% 이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종백) 금융지원센터는 지난 24일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하는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획득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지원센터는 고객응답율이 97% 이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상담사 퇴사율이 1% 미만으로 우수한 근무여건과 감성관리 능력을 갖춘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실 김종만본부장은 "이번 금융지원센터 KS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고객중심의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발전, 상담 인프라 투자 확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금융지원센터는 전국 새마을금고 회원으로부터 걸려오는 새마을금고 취급 상품 및 업무안내, 자동화기기 안내, 체크카드상담, 자금반환, 이상금융거래탐지 상담, 분실 및 사고신고 접수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처리하고있다.

탕정면 적극 행정으로 주민과 가까이

최근 탕정면이 다양한 시책으로 열린행정, 적극행정을 구현하면서 주민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분좋게 찾는 탕정면사무소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방문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내 무단 · 장기 주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경관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탕정면은 그 동안 무분별한 무단 · 장기 주차로 인해 정작 민원업무를 위해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들었다. 탕정면에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함에 따라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친절하게 맞이해도 면사무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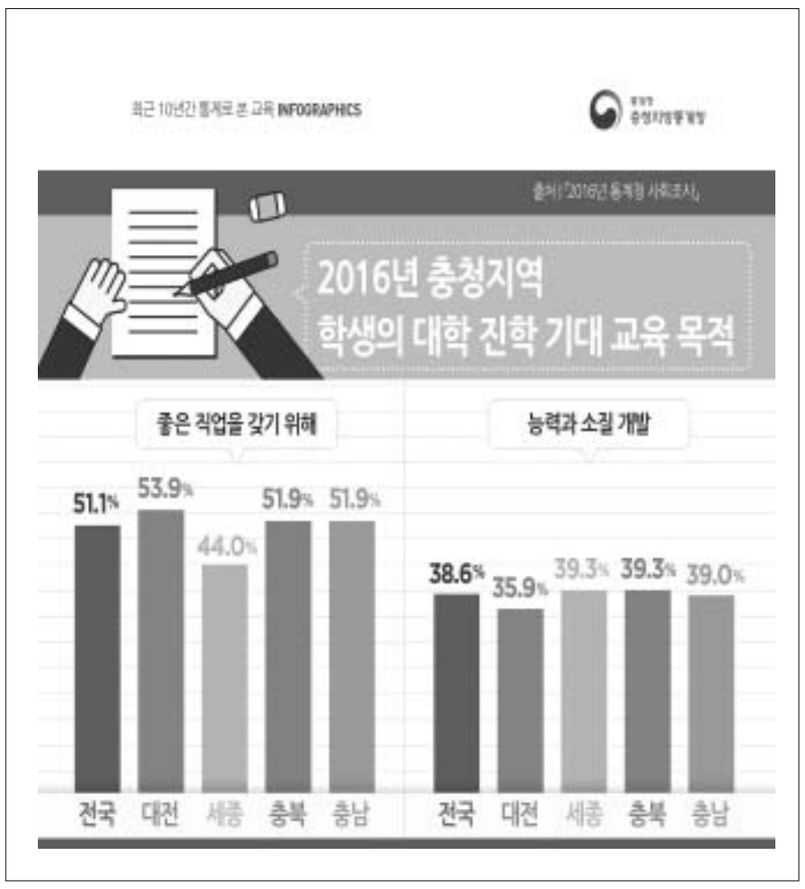
이를 개선하기 탕정면은 면사무소 주차장에 주로 무단 · 장기 주차를 하던 관내 기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속 임직원들의 면사무소 내 무단 장기 · 주차 금지 요청하는 한편, 전 직원이 1일 2명씩 조를 편성하여 오전 8시부터 민원방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10여건에 이르던 주차관련 민원이 최근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면사무소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탕정면은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연령층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함에 따라 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사무소 로비의 불필요한 데스크를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찾아내어 개선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 대화의 공간, 쉼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벽면에는 지중해마을을 연상시키는 대형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탕정면의 특성을 함께 살렸다.

마을 주민 유 모씨(47세)는 "예전에는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경직된 이미지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면사무소에 오곤 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생기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면사무소에 오는 데 부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탕정면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기관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친절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처음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출생축하카드에 인쇄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을 우선하는 감동행정 실천을 통해 면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최우수대학 및 최우수캠퍼스' 상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과 바이오캠퍼스는 전국의 폴리텍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폴리텍대학 평가결과 대학 및 캠퍼스 영역 모두에서 1위를 차지, 2015년도에 이어 최우수 대학기와 상패를 수여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매년 전국의 8개 대학, 34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취업률, 양성률, 입학률, 향상훈련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대학, 캠퍼스) 및 우수교직원을 선정,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배섭 학장은 학장의 경영목표를 이해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애써준 바이오캠퍼스를 비롯한 특성화대학 교직원들께 영광과 감사를 전하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성화대학 본부 캠퍼스인 바이오캠퍼스는 바이오 산업 동향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90%이상의 취업률을 나타 내고 있다.

바이오캠퍼스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8년도 수시 1차 모집 원서를 접수하며, 바이오품질관리과 등 6개 학과에서 120명을 선발한다.

이정복기자

"혁신성장으로 3%대 성장능력 확충"

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 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마련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 · 차관, 당 ·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는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 ·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정책을 요약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3%대 성장능력 확충이다.

기재부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 · 심사 · 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 ·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23조 6000억원의 재원 마련 추진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 ·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고 올 11월까지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 · 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대 · 중기 상생,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공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 · 대학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중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 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 · 협력을 통한 혁신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9월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과 정보 그리고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규제적용 면제)를 도입하고 산업 · 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창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높으나 수익성이 높은 분야 투자 즉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창업수준 지원 등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

아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이 쉽게 우리동네 대기질 상태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을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광장에 시범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아산시 모종동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오존의 대기질 상태를 좋음(파랑), 보통(녹색), 나쁨(노랑색), 매우나쁨(적색)으로 표정과 함께 표출하고, 실시간 농도도 알려준다.

아산시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 중인 대기오염측정소가 정상 가동 되면 현재 모종동 측정소에서 받고 있는 데이터를 배방읍 측정소 데이터로 변경하여 배방읍 시민들이 우리동네의 정확한 대기질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시는 현재 가동 중인 모종동 측정소 외 4개의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5개 측정소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산시민이 가까운 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초등학교 등 지역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약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관광도시 공주를 태워드립니다"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 손님맞이 택시 친절교육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공주대학교 한민족문화원에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손님맞이를 위한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소, 인사, 이미지 메이킹 기법'이라는 주제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을 비롯해 택시 민원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올해의 관광도시 17개 세부사업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관광 서비스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이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시덕 시장은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관광산업"이라며, "관광산업의 최선봉에 있는 기사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 손잡고 실시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5개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손잡고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단속을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및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3월 개학기에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법규 · 불법영업 행위 · 불량식품 판매 · 불법광고물 등 위해요인 83,1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 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 및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 · 고용행위, 성매매 ·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식품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 · 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 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고 정비한다.

김정환기자

CNU-BC 글로벌 리더십 16명 파견

충남대, 영어교육과 현지기업 인턴십 진행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 재학생들이 미국 블룸필드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영어교육과 현지기업 인턴십을 진행한다.

충남대는 23일 오후 2시, 인재개발원에서 'CNU-BC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오덕성 총장과 피터정 블룸필드대학 부총장, CNU-BC 프로그램 참가 학생 16명 등이 참석했다.

'CNU-BC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은 충남대학교(CNU)와 미국 뉴저지 블룸필드대학(Bloomfield Colleg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4주간 블룸필드 대학에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을, 12주간 미국 현지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한다.

이정복기자

철도공단, 제2차 경영진 워크숍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제적 이행 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5일 본사 상황실에서 공단이 이행해야 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세부 이행계획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2차로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공단소관 28개 과제와 16개 지역공약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차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제2차 워크숍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관 28개 과제에 대해 40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하고, 16개 지역공약과 함께 이행계획 공유와 심도 있는 토의 등을 이어나갔다.

송병배기자

신창면 행복키움, 민 · 관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산시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세흥)은 지난 24일, 행복키움추진단의 민 · 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하고 우수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여러 가지의 민관협력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좀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지역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자 실시됐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전종신)는 지난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우수선도 사업 지역으로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곳으로, 기본형 모형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민 · 관협력으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종신 수송동장의 인사말과 임성택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환영사, 참석자 소개, 민문기 맞춤형복지팀장의 복지허브화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김정식 면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장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우리 면 행복키움추진단원들과 함께 접목시켜서 민관협력 활성화가 더욱 안정되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 개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 운전면허본부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서울지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관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7차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 정원섭 교수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쟁점 (사고 시 책임 귀속과 자율 주행자동차 도덕지수)』, 강릉원주대 이재현 교수의 『자율자동차(AV)와 인공지능(AI)』 등 주제발표와 함께 홍익대 이중기 교수, 서경대 박주석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 등 연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송병배기자

청양 고추 · 구기자축제 성공개최 응원

㈜맥키스컴퍼니, 소주병 보조라벨로 홍보 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5일 소주병 보조라벨 홍보로 제18회 청양고추 · 구기자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맥키스컴퍼니(대표 조웅래)와 손잡았다.

군은 ㈜맥키스컴퍼니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청양백세건강공원에서 펼쳐지는 청양고추 · 구기자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O_2린 소주병 보조라벨 전달식을 가졌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종료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해 온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진소방서,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25일 꿈동산 어린이집(당진시 송악읍 소재) 원아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피방법, 119 신고요령,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보건소, 온양전통시장 수해침수지역 긴급 방역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지난 24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온양전통시장 일대 상가 등 침수지역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청양소방서, 안전한 청양 만들기에 최선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25일 통제단과 근무자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재난현장 대응 수습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 훈련을 실시했다.

대전·충남병무청, 영주권병사 환영 간담회 개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영주권 병사 51명을 초청, 환영 간담회를 가졌다.

"생리 양상 이상 있으면 산부인과 검진 필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독성 생리대 부작용 대한 의견 밝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균부)가 독성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와 살충제 계란에 이어 독성 생리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화학성분과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케미컬 포비아'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특정 생리대를 사용한 여성들이 생리를 몇 달씩 건너뛰는 생리 주기의 변동, 생리량 감소, 생리통 악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이에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이 시판 생리대 10종을 조사한 결과 미량이긴 하지만 총 22개의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생리 주기나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타이렌이나 톨루엔도 검출되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생리대의 독성물질 조사를 앞당기겠다며 생산업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공보이사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의 화학물질인 환경호르몬이 신경계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경고됐었다"고 말했다.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궁 등의 여성 생식기는 매우 예민해서 환경호르몬뿐 아니라 유전적 요소, 자궁 및 난소 질환, 영양섭취, 운동량,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생리량 급감 또는 급증 등 생리 양상이 쉽게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생리 양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무시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골반염 및 골반 내 유착 등의 질환이 심해지고 급기야 불임과 만성골반통증 같은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조병구 공보이사(산부인과전문의·노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는 "생리를 몇 달씩 건너뛰기도 하는 생리불순,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생리통, 갑자기 생리량이 급감 또는 급증하는 식의 생리 양상 변화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미혼여성들이 많다. 만혼과 고령 임신 추세가 겹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여성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병구 이사는 "생리통이 평소 심하다면 환경호르몬의 검출 위험이 큰 일회용 용기 같은 플라스틱 물질의 접촉 빈도와 각종 첨가물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 식품인 채소 및 과일 등 유기농 식품 위주로 영양소를 고르게 충분히 섭취하며 적절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생활 습관을 여러모로 바꾸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리 양상의 변화는 급격한 다이어트,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체력 저하, 생식기의 질환 등의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는 만큼 산부인과 또는 여성의원을 찾아 필요한 검사도 받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이사는 생리 양상에 이상이 나타났더라도 당장 산부인과를 찾기 어렵다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마이보라 같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조절을 통해 생리통 또는 생리주기 불순이 상당 부분 좋아지니까 참지만 말고 시도해 볼 것을 권했다.

피임약 복용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산부인과 또는 여성의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병구 이사는 "초경부터 폐경기까지 수십년간 매달 1회 생리를 겪는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사용 빈도가 높고 피부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현재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규제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제조와 판매에 문제가 없는 지금의 관리 실태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부여소방서, 이주여성 대상 소방안전교육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과 이주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소방서에서 이뤄졌으며, 평소 화재로부터 취약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교육에서는 119신고요령과 화재 시 인명대피방법, 소화기사용법 등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어서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용 애니를 활용해 직접 체험에 임하며 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말이 다소 서툴고 상황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 특성에 맞춰 119 앱 또는 영상통화 등 다양한 119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서 E형간염 한해 100명 발생

E형간염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계획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영국의 E형간염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E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우리나라에서 E형간염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E형간염은 E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 사슴 등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에 감염되며, 15~60일(평균 40일) 잠복기를 지나서 피로,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황달, 진한색 소변, 회색 변 등의 증상을 보이고,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자연회복되며 치명율은 약 3% 정도로 낮지만, 임신부, 간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의 경우는 치명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E형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명이 감염되고 약 330만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하며, 2015년에는 약 44,000명이 사망(치명율 약 3.3%)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시아·중남미·북아프리카 등 주로 저개발국가서 오염된 식수로 유행이 발생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육류, 가공식품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담즙, 노루 생고기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통계에 의하면 연간 100여명이 E형간염으로 진료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E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부, 간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E형간염의 발생규모 및 중증도, 감염원,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E형간염 현황, 중증도 등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각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공주청소년경찰학교, 개교 1주년

경찰청과 교육부간 협업으로 2016년 개교

공주경찰서(육종명)가 청소년들의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설치한 공주청소년경찰학교가 개교 1주년을 맞았다.

공주경찰서는 지난 25일 공주청소년경찰학교에서 경찰서장, 공주시장, 교육장, 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청소년경찰학교가 개교 1주년 행사를 가졌다.

공주청소년경찰학교는 유휴시설인 왕릉치안센터를 활용하였으며,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간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2016년 개교했다.

이 날 개교 1주년 행사는 공주청소년경찰학교 경과보고, 향후 추진방향, 축하 케이크 커팅 및 다과회 순으로 진행 됐다.

공주청소년경찰학교는 지상2층의 규모로, 학교폭력 가·피해자 등 상대방의 입장을 간접체험해보는 역할극 체험, 모의사격 체험, 자신의 지문을 직접 채취 배지로 제작해 보는 과학수사(CSI) 체험과 경찰제복 및 장구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중간발표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해…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와 금강유역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함께 412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21개 사업장을 적발 (위반율 5.1%)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사안이 중대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조치(고발)도 병행했다.

세부 위반 유형은 비정상가동(2개소), 무허가(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5개소), 기타 위반(5개소)이며,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2개소), 사용중지(6개소), 폐쇄명령(3개소), 개선명령(5개소), 경고(5개소)로 시정조치를 했다. 이영호기자

'충남사회복지대상'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선정

제11회 충남사회복지대상 수상자로 단체부문은 서산석림사회복지관(관장 이욱·사진), 개인부문은 박남신 충남도 복지정책과장이 선정됐다. 새내기 부문은 우세아씨 등 10명이 차지했다.

충남사회복지대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우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범적인 단체나 개인을 선발·표창하는 제도다.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온양사업장·삼성SDI 천안사업장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사회복지대상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공적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단체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은 1996년 4월 설립, 지난 20년간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무료급식 6372회, 도시락 배달 5213회 실시하는 등 결식위험 저소득 노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따.

특히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은 서산시기초푸드뱅크 운영을 통해 연 7만 4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산시 사회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되고 있다.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남신 도 복지정책과장은 일반 행정 직렬임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12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우수 복지시책 발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복지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 과장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를 위해 후원기금을 20억 원 조성해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미국 LA슈라이너 병원과 협정을 통해 매년 10여명의 화상·정형장애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예의 수상자에 대한 부상으로 단체부문은 시상금 500만 원이, 개인부문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새내기 부문의 수상자 10명에게는 각각 시상금 50만 원과 2박3일의 국내연수가 제공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 홍성군 소재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18회 충남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서산=김정한기자

119소방동요대회참가팀 격려

아산소방서, 아산북수초와 리라어린이집 찾아 격려

제9회 충남 어린이119소방동요대회에 참가하는 아산북수초등학교(지도교사 임사라)와 리라어린이집(지도교사 황은희)을 찾아 무더운 날씨에도 연습에 한창인 어린이들을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은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와 함께 녹음반주에 맞춰 율동을 하며 연습에 매진한 가운데, 감점기준 및 대회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가연성 외장재 마감 건축물 전수조사

예산소방서, 화재예방대책 추진 등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오는 연말까지 가연성 외장재 마감 건축물 전수조사 및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런던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부산 골드스위트 고층아파트 화재(2010년 10월 발생) 등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외장재 화재 확산 사례가 발생 되었던바,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해소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총 472개소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건물 외벽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 및 현장 활동요건 등이다. 또한, 이번조사에서는 관계인 및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도 함께 실시 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렌펠타워 화재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성인남녀 10명 중 3명 '나는 당 덕후다'

<인쿠르트> '설탕과의 전쟁, 여러분의 당 섭취 습관은?' 설문조사 결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와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가 공동 진행한 '설탕과의 전쟁, 여러분의 당 섭취 습관은?'이라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바로 그것.

'최근 한달 간 당이 떨어진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성인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당류 섭취가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33%가 '그렇다', 38%는 '아니다'라고 답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그렇다면, 성인남녀들의 당 섭취는 어떠한 모습일까? '자신이 당 섭취 중독이라고 느껴 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6%의 응답자가 '그렇다(나는 당 덕후다)'라고 답해 당 성애자임을 고백했다. 물론 절반 이상인 64%는 '당 섭취를 즐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덕후들을 성별 및 연령별로 분류하니 남자(26%)보다는 여자(40%)의 비율이 약 1.5배 높았고, 10대이하가 42% > 20대 41% > 30대 35% > 40대 25% > 50대 이상 33%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당 섭취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당을 깎는 모습도 비춰졌다.

응답자의 38%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42%) 두통/집중력 저하/짜증 등을 일으키는 "금당(禁糖)현상"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금당현상을 경험한 경우, 극복하기 위해 양치질을 하거나(18%) 단 음식 대신 과일을 섭취(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섭취를 줄인 배경 1위는 '체중증가'(43%)였다. 이어서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방지 차원'(19%) 2위, '충치 등 구강상태 악화'(12%)가 3위 순이었다.

끝으로, 정부의 이번 당류저감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2,591명)이 '찬성'하고 있었다.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며 생긴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발병 방지를 위해서라도 규제정책은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반대'의사를 내비친 응답자는 30%(1,477명)에 달했다. '개인의 식습관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성인 남녀 스스로 당류 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번 정부 정책의 최우선에 '국민건강'이 자리해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설문 소감을 밝혔다. 본 설문조사는 작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인크루트 회원과 두잇서베이 패널 총 5,099명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이정복기자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복캠프

장애학생 자기보호역량강화 및 진로 · 직업탐색 위해 운영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8월 24일(목)~25일(금) 1박 2일간 장애학생의 자기보호역량강화 및 진로 · 직업탐색을 위한「2017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복캠프」운영으로 천안 상록리조트를 방문했다.

장애학생의 꿈과 끼, 자기보호역량강화를 위해 계획된 이번 행복캠프는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자 및 인솔교사 97명이 참석하였다.

첫째날에는 장애학생의 진로설계를 위한 나의 꿈 및 학교별 끼 발표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레크레이션(강사: 예산초 박영주)시간에는 즐겁고 재미있는 율동과 활동타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생존수영 및 자기보호역량강화를 위해 아쿠아피아 수영체험 및 상록리조트 놀이시설 이용과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한 활동을 하였다.

이번 행복캠프를 계획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민보람 운영부장은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감 고취를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천동대초, 따뜻한 마음 키우는 심온화(心溫化)캠프 대천동대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 지난 18일부터 1박2일 동안 한울관(체육관)과 다목적실에서 심온화(心溫化) 캠프를 실시했다.

강경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공연 강경중(교장 박병동)은 이문열 원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연극을 논산시문화원에서 23일 공연했다.

평준화고 2학년 담임교사 진로 역량강화 연수

충남도교육청, 평준화고 2학년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 130명 대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6일 선문대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2017학년도 평준화고 2학년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 130명을 대상으로 진로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천안 고교평준화 2기인 1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방안을 모색하는 연수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연수에 이어 천안 고교평준화 1기인 2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이후 다양해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 진학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연수이다.

오전에는 ▲교육과정 들여다보기 ▲수업과 성장의 기록이란 특강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진로 유형별로 4개영역 8개 분반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로 ·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를 통한 간접 체험과 모의실습, 질의응답 등 참여형 연수를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 제7회 e-ICON 세계대회 제패

교육부장관상 수상… 세계 선도하는 스마트 세종교육의 위상 드높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3일에 폐막한 「제7회 e-ICON 세계대회」에서 1등에 입상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세종교육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세종시 대표로 참가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2학년 이찬규/조하연, 지도교사 김희순) 팀은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두 달 넘게 협업을 통해 인간의 우뇌를 향상시키는 독창적인 관찰프로그램인 'Right Up' 온/오프라인 앱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찬사를 받았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Henri Christiaans 교수는 다른 팀들이 대부분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집중할 때, 창의성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상의 본질 파악을 통한 수동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우뇌드로잉 개념을 도입하여 접근한 것에 큰 공감을 했고, 이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위풍당당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

충남도교육청, 하반기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반기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졸업식을 갖고 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교육과정을 수료한 9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로, 김지철 충남교육감, 도 · 시의원, 졸업생 가족, 재학생, 친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경쾌한 우쿠렐레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교육활동 동영상 시청,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으며 초등학력 인정서와 졸업장을 받을 때마다 힘찬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번 졸업생은 9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연령별로는 80대 1명, 70대 3명, 60대 4명, 50대 1명이다. 졸업생 대부분이 경제난 등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학습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졸업생 중 최고령자는 올해 나이 82세의 김봉임씨.

이웃의 소개로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린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제는 이름도 반듯이 쓰고 시도 쓸 수 있을 만큼 배웠다. 같이 배우는 동생들에게 언니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남모르게 노력해 졸업장과 교육감상을 받게 되었다. 김씨는 "이 나이에 배워서 무엇하느냐?는 우려섞인 말들도 들었지만, 배움은 내게 큰 기쁨을 줬다"고 말했다.

당진초, 소프트웨어(SW) 캠프 인기

2017학년도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당진초등학교(교장 심재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여름방학 소프트웨어(SW) 캠프를 실시했다.

캠프 운영 최대 인원인 30명을 훨씬 초과하는 학생이 참여를 신청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이번 캠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캠프가 시작되기 전부터 뜨거웠다.

이번 소프트웨어(SW) 캠프는 3일간 12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엔트리의 기초,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체험과 놀이, 햄스터 로봇 프로그래밍 체험 등 단순한 프로그래밍 지식과 기능의 전달이 아닌 체험과 놀이, 협업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재구성해 운영했다.

심재진 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계획해 운영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수강생 모집

2017년 5기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수강생 450명 선착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다음달 1일까지 2017년 5기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수강생 4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초3~성인까지이며 수강기간은 9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2개월과정으로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은 원어민과 수강생의 1:4 수업과 1:1수업이 있다. 수강료는 1:4 수업의 경우 초3~중3은 58,000원, 고1~성인은 68,000원이며, 1:1 수업은 초3~성인까지 178,000원이다.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돕기 위해 1:4 수업의 경우 초3부터 중3까지 수강료 58,000원 중 일반가정 학생은 18,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은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아산시 원어민 화상학습센터(http://nise.kr/asan)'를 검색한 후 회원 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아산시 교육지원담당관(540-2032)로 하면 된다.

시는 2011년부터 시작한 아산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은 매월 300여명의 수강생이 꾸준히 이용하여 그동안 22,3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만족도가 높아 내년부터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수강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7월부터 협력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고1부터 성인의 1:4 수업 수강료를 78,000원에서 68,000원으로, 1:1 수업 수강료는 188,000원에서 178,0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시 고북면, 흰불나방 유충 집중 방역

관내 주요 가로수와 마을 어귀 등 수목 집중 방역 실시

서산시 고북면(면장 박경환)이 관내 주요 가로수와 마을 어귀 등 수목에 번식한 미국 흰불나방 유충 방역을 실시했다.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수목의 잎맥만 남기고 이파리를 모두 먹어치우며, 심지어 수목의 성장까지 방해하는 등 나무를 옮겨가며 피해를 입히는 곤충이다.

박경환 면장은 국흰불나방 유충의 이동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중순까지 주기적인 예찰활동 및 집중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교육뉴스 학생 아나운서 · 리포터 모집

학생 · 현장중심 홍보콘텐츠 제작계기 마련…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8일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학생 · 현장중심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대전교육 뉴스' 학생 아나운서/리포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대전교육청 소속 초등학생 5~6학년, 중 · 고등학생 및 대전 지역 대학생 총20명이며, 오는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모집 방법은 1차 서류전형(접수기간: 2017.8.28.(월)~2017.9.8.(금)), 2차 면접 및 카메라 테스트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017. 9. 21.(목)에 개별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방송국 견학 및 아나운서 교육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아나운서/리포터를 선발해 대전교육 뉴스 진행, 기획영상 및 각종 홍보영상물 나레이션, 교육청 행사 진행 MC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대전교육 홍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고시 · 공고란을 참조하고, 대전교육청 공보관(042-616-806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정환기자

대전아동가족상담센터 여름 현장체험 실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 대전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는 지난 26일 JFK 대천 워터파크에서 "Summer Festival" 이라는 주제로 가족여름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가족 및 자원봉사자(우송대학교 푸른하늘 동아리)를 포함, 총 58명이 참여했다.

●동 정●●●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업무협약식

안희정 충남도지사= 28일 오전 11시 30분 도지사 접견실에서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기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교육공무직원 송공패 수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8일 오후 2시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9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후 4시 30분에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교육공무직원 송공패 수여』, 오후 6시에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2017 사서직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8일, 오전 11시 30분, 교육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회」에 참석.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28일 오전 8시 40분군청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2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2017년 굿GOOD보러가자

충남도, 오는 30일 오후 7시 열려

충남도와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무형유산공연 '2017년 굿GOOD보러가자' 공연이 30일 오후 7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굿GOOD보러가자'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전국 중소도시와 문화소외지역을 순회하며 무형문화재 및 전통예술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전통예술 종합공연으로, 무형유산의 전승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울릉군, 고창군, 파주시, 충남도청, 제주시, 함양군, 광양시 등 총 7개 지역에서 국악인 오정해의 진행으로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팔도의 얼굴'로 선정된 예인들이 활기찬 무대를 꾸민다.

오는 3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는 '선비의 멋과 운치를 품은, 충남'을 주제로 '명불허전'·'팔도풍류'·'만년행락' 세 마당으로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1000원(예매수수료)이며, 예매는 문화장터(www.asiamunhwa.com) 또는 전화(1644-9289)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굿GOOD보러가자 공연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비롯해 전통예술 장르 등 다양한 콘텐츠에 지역의 스토리를 가미한 공연작품으로 도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김정한 기자

충남도, '국·도정 연계 강화' 국정과제 선도 매진

확보된 자원 미래가치에 투자 매진

충남도가 2018년 도정 핵심과제로 국정-도정 연계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 선도 추진, 민선6기를 갈무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약의 안정적인 달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해 확보된 자원을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 정책특보, 정책자문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책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역점시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로 삼고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국가정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3대혁신+3대행복' 체계로 진행돼 온 민선6기를 안정적으로 갈무리할 시점이라고 보고 도정결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선5·6기 주요성과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진했던 과제에 대한 보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 공약 가운데 96.7%가 완료 또는 계획대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임기 내 100% 달성을 위해 향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행정지원, 농업경제, 문화복지환경, 안전건설소방 등 도정을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해당 실국원장이 시책을 보고하고, 시책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7년간 선출직 도지사로 도민을 대표해 새로운 시대 여건에 부합하는 도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정 기조는 내년에도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충남의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채택되었고, 주요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의 제안이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이라는 열정과 자부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내년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해를 맞아 충남도의 주요현안이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실국별 해당 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한 기자

도민 에너지기획단공개 모집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에 참여할 '도민 에너지 기획단'을 공개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공급·소비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전환 비전은 기후변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지역 환경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기후·에너지 정책 구상 필요성에 따라 도가 수립 추진 중이다.

도민 에너지 기획단은 충남의 미래에 관심 있는 도민 또는 도내 거주자로,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로,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또는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cnagenda21.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cnagenda@hanmail.net)로 보내거나, 우편(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600 충남도청 의회동 102호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앞), 팩스(041-634-8061) 등으로 보내면 된다.

또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를 보내도 된다.

도는 신청자 중 지역과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 7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민 에너지 기획단은 세 차례의 워크숍에 참여, 비전 수립에 필요한 학습을 진행하며,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 받는다.

워크숍 1차 교양교육은 10월 14일 오후 1~6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2차 기초 토론은 10월 21일 같은 시간·장소에서 진행한다.

3차 심층 토론 및 비전 선택 워크숍은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갖는다.

국정덕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 결정과 사회 공론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 과장은 이어 "이에 따라 도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와 연구진은 각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민 에너지 기획단은 에너지 전환 비전을 토론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부터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 정책 동향 및 사례 △도의 기존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정책 △충남의 에너지 공급·소비 현황 및 전망 등을 조사·분석한다.

제7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예산군 화합-친목 다지는 계기

예산군은 25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제7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지부장 남창희)가 주최하고 예산군지회(지회장 손기승)가 주관한 이번 체육대회는 행정 최일선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체육행사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이·통장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충남도내 시·군 이통장을 비롯해 황선봉 군수, 권국상 군의회의장,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시장·군수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노래자랑 △시상 및 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주민과 지방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각 시·군 이·통장 44명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고무신 투호, 볼링축구, 대형 제기차기 등 3종목의 경기가 진행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노래자랑에서는 각 시·군 대표자와 초청가수 등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흥을 돋궜다.

황선봉 군수는 환영사에서 "이·통장님들의 노력과 봉사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충남도 내 시·군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돼 내년에는 공주시에서 개최된다.

예산=양성업기자

홍성군, 제6회 정책현안조정회의 개최

도-시군 상생발전 도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위기가구 사전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남형 보건복지서비스 향상에 충남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홍성군에 따르면 24일 홍성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6회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과 道 실·국·본부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보건복지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으며,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군 실적 관리 협조 및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현안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5개 시·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나아갈 보건복지의 서비스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홍성역사인물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등에 대한 협조 및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회의에 앞서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인구 10만을 회복하며 3읍시대를 열며 발전에 속도를 내는 희망의 땅 홍성을 강조하고, 내포신도시 성장과 함께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와 이웃한 예산군의 협조를 구했으며, 다음달 23일부터 개최되는 '홍성역사인물축제'에 각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는 15개 시·군과 충남도의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신규정책 발굴 등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지방정부의 롤모델을 만들고 있다. 홍성=김정한기자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회의 개최

인구증가 위한 각종 정책전개

홍성군(김석환군수)이 지난 8월초 인구증가 종합대책반을 출범한데 이어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전개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정책 못지않게 여성친화 정책 또한 인구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25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홍성' 조성을 위한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군수 김석환)을 비롯해 군 의원, 교수, 시민단체, 군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행 계획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일 발대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이 제안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건의 사업 시행 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참고로 홍성군의 여성인구 비율은 502%로 도내 4위에 해당될 정도로 높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지정 3년차를 맞은 홍성군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이라는 비전으로 ▲성(性) 평등한 ▲일하기 좋은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한 ▲함께 돌보는 홍성을 5대 목표로 삼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5대 비전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군은 여성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배려창구 운영,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총 15개의 사업을 다양한 군정 분야에서 추진 중에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홍성군은 그동안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가 여성인구의 증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정한기자

충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

도내 가금농가 대상 방역 교육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 당진 농업기술센터와 3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가금농가 대상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0년 이후 구제역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지난 4월 13일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가금 사육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닭 진드기 방역 등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장화 소독 방법부터 차단 방역 시스템 개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번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도내 양계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아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4월 논산까지 7개 시·군 64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135개 농장에서 도내 사육 가금류의 15%에 달하는 741만 수를 살처분했다.

김정한 기자

세종시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

"중소벤처기업들 판로확보·경제 활성화 기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25일 세종시청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인섭)과 '2017년 세종시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및 대전·충남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각 분야별 44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세종시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 구매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하여 1대 1 상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구매 담당자에게 제품·기술력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상담회가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확보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공주·부여 백제문화권 팸투어

충남도가 최근 개통한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공주역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SR마케팅 담당자와 여행사 관계자, 블로거 등을 초청, 공주·부여 백제문화권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들 팸투어단은 24~25일 1박2일간 공주와 부여의 세계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세계유산의 관문인 공주역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1일차인 24일 팸투어단은 공주역을 출발해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무령왕릉을 둘러보고, 공주의 전통시장인 산성시장, 공산성 등 공주지역 주요 관광지를 차례로 살폈다.

2일째에는 부여로 자리를 옮겨 백제 왕궁의 후원으로 세계유산에 포함된 부소산성을 살펴보고, 정림사지와 국립부여박물관을 둘러보고 다시 공주역으로 이동,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 관계자는 "SRT 개통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공주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며 "공주역과 세계유산을 연계한 여행 상품이 개발되면 국내외 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정

간부회의

복기왕 아산시장=28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협약식

김홍장 당진시장=28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및 협약식에 참석.

개관식

한상기 태안군수 = 28일 오후 3시 안면읍에서 열리는 안면 실내체육관 개관식에 참석.

추진위원회

이석화 청양군수 = 28일 오전 10시 30분 청양읍 군량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군량리 도랑살리기 주민교육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8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에 참석.

민선6기 주요 사업 꼼꼼히 챙긴다

한상기 태안군수, 지난 24일 갈음이 낚시 공원 사업장 등 주요 민생현장 방문

한상기 태안군수가 지난 24일 근흥면 갈음이 낚시 공원 사업지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민선6기 시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1일 추진한 현장점검과 연계 실시된 것으로, 한 군수는 이날 ▲무더위 쉼터(근흥면 정죽리) ▲보건 진료소 신축 현장(근흥면 정죽리) ▲갈음이 낚시 공원(근흥면 정죽리) ▲태배 낚시 공원(소원면 의항리) ▲보건의료원 완화의료병동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 및 보완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낚시부잔교 6개소와 해상펜션 등 편의시설 6개소를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갈음이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의 개장 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오는 하반기 운영에 돌입할 의항리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해 육상 및 해상광장, 해상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살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밖에도, 한 군수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태안군이 전국 보건의료원 중 최초로 구축한 자체 완화의료병동을 찾아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 군수는 올해 안에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사업장과 남면202호 확·포장 공사 현장 등 20개소를 추가 방문키로 하는 등 민선6기 사업 추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군수는 "민선6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 불편 최소화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충청권역 단주연합캠프 참가

아산시보건소, 50여명 등록회원 · 담당직원 참여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태안 신두리에서 개최된 충청권역 단주연합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단주연합캠프는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최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충청권역으로 묶인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등 3개 센터에서 50여명의 등록회원과 담당직원이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각 센터별 사업소개, 갯벌체험, 단주경험담 나누기, 해안사구 탐방, 나에게 붙이는 느린 편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이모 등록회원은 "타 센터 회원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단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재발방지 및 단주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등록회원들의 단주워크숍 참가지원 이외에도 각종 연합사업과 함께 매 주 목, 금요일 정기적으로 중독등록회원의 재활을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중독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해나루 농산물 한가위 선물로 으뜸

당진시, 한가위 명절 선물 상품전 참가

당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열린 '한가위 명절 선물상품전'에 참가했다.

이번 상품전은 ㈜메쎄 E&D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명절 선물 전문 박람회로,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관련 기업체 및 단체가 기업체 구매 담당자와 대형 백화점, 마트 상품기획자, 유통 바이어 등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였다.

당진시도 이번 박람회 기간 중 해나루 추석 선물 홍보관을 운영해 당진의 우수 농·특산품인 백석 올미 매실한과 선물세트와 명천맛김 등을 전시·판매했다.

당진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3농 혁신 및 로컬푸드 범시민 운동의 일환인 '추석 선물,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용하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 이를 위해 당진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관내 기업체와 향우회 등에 발송하는 한편 향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가락시장 등에서 열리는 추석 명절 직거래 장터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설맞이 농산물 판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요인으로 시장 여건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추석 명절 대목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규제개혁 점검회의 열려

법령 위임조례 등 조례 정비상황 · 규제개선우수사례 점검

태안군이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현표 부군수 주재로 '2017년 태안군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실적 점검에 나섰다.

각 부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법령 위임조례 정비 현황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선정과제 추진 현황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우수사례 보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태안군의 정비대상 조례는 필수조례 8건과 규제완화조례 21건, 조례 규제개선 50선 30건 등 총 59건으로, 25일 현재 42건이 완료돼 72.2%의 정비율을 기록 중이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법령 위임조례 중 미정비 조례 총 15건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율정비 대상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규제개혁 분위기를 고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군민들 다양한 작품을 기다립니다

청양문화원, '칠갑문화27호' 원고 모집

청양문화원(원장 이진우)이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학 발전을 위해 '칠갑문화 27호'에 수록될 다양한 문학작품을 오는 10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칠갑문화'는 1991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발간돼 오고 있으며, 지역 문학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12월 중순 발간되는 27호에 수록되는 원고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 수필, 논설, 발굴수기 및 내 고장 청양에 대한 정서와 고향을 그리는 마음, 애향심이 담긴 산문 또는 에세이 등 기 발표된 내용도 가능하다.

모집된 원고는 편집위원의 교정을 거쳐 게재될 예정이다.

문화원 관계자는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관련 문의는 문화원 사무국(943-4774~5)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달빛 야간건강체조교실 '인기'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가 운영중인 야간건강체조교실이 해마다 참여자가 증가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건강체조교실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아산시청앞 공원 등 5개소에서 진행되는데 시민들은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도 향상시키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남성들도 음악과 분위기에 이끌려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야간 건강체조교실은 낮시간 동안 운동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운동습관 형성과 건강관리를 위해 저녁시간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서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아산시청앞 공원(월·수·목) ▲배방읍사무소 옆 공원(월·수·목) ▲탕정면 용호교 공원(월·화·수·금) ▲온양2동 어린이공원(월·수·금) ▲용화3통 공원(월·수·금)에서 운영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생활 속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문화원 하계문화학교 성료

청양문화원(원장 이진우)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친 2017 하계문화학교가 지난 22일 수료식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육은 컵난타교실(강사 김진아), 방송댄스교실(강사 최정화), 쿠킹클래스교실(강사 김경희), 로봇창의 과학교실(강사 이명희)등 4개 강좌에 6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수료식에서는 컵난타교실, 방송댄스교실 학생들이 수강생을 대표해 3주 동안 배운 실력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수료증 전달 및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으로 마무리 됐다.

이진우 문화원장은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동·하계 다양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데 큰 원동력이 되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문화원은 매년 방학동안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양문화원 관계자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문화체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니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애를 느껴보는 계기를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남양면 의용소방대 신형소방차량 보급

청양군 남양면 의용소방대(대장 한선희)는 지난 24일 신형 소방차를 보급 받아 재난안전 사고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됐다.

남양면 의용소방대 대원 20여명은 새로 보급된 소방차량 전달식을 갖고 안전운행을 위한 기원제를 지냈다.

이날 전달 받은 소방차량은 기존 5톤 펌프차의 내구연한 초과로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에서 새로 보급해준 차량이다.

평소 남양면 의용소방대는 생업으로 바쁜 중에도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해 누구 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화재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평소에도 수시 안전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지킴으로 자리 잡았다.

한선희 남양면 의용소방대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재난 없는 지역 만들기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 꽈리고추 가공상품 개발 점검

지난 25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열려

당진시는 지난 25일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꽈리고추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6월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꽈리고추의 하절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가공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절임찬류와 만능 소스 개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는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문제점을 보완 및 반영해 기술개발에 나서는 한편 개발 후에는 특허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지역 가공업체와 소규모 창업농가 및 전문식당 등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한 가공상품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 국내 유수의 식품회사와 손잡고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이나 아웃소싱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당진 꽈리고추는 연간 3,400여 톤을 생산해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당진의 대표작목으로, 육질이 연하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공무원 친절도 자가진단 실시

계룡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기성찰 및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자가진단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전산망을 활용해 근무자세 · 방문고객 및 전화민원 응대태도 등 15개 문항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친절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공직자 스스로에 대한 친절도 전반을 평가한 결과, 친절도 종합 항목에서 응답자의 89%가 '매우 친절하다'와 '대체로 친절하다'의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친절교육 부족 등의 이유로 전화 응대에 있어 마무리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에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측정기준과 친절도 수준을 정확히 분석해 민원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문결과 건의된 친절교육실시, 악성?특이 민원 대응 방안 마련, 내부고객 만족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진단을 통해 도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성찰을 통해 보완하는 등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2020년까지 전기차 529대 보급 및 충전시설 148기 구축 계획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확대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의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충전기 설치 보조금 사업을 실시해 설치비용으로 공용 충전기는 기당 500만원, 비공용은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편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에 위치한 법인 또는 사업체로, 전기차 구매자는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전기 구매 보조금 공용충전기 1기당 500만원

(완전개방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말까지로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대표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설치 계약서, 현장점검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외 추가로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최대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 최대 460만원 가량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00기의 전기차 공용충전기를 설치하는 한국전력 협력하에 공동주택 무료전기 충전기 설치 사업도 실시한다. 관내 공동주택이 충전기 설치부지를 제공하면 한전이 무료로 충전소를 설치, 유지 보수한다.

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29대 보급, 충전시설 148기 구축을 목표로 시청, 각 구청, 공영주차장, 아파트,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전기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천안을 친환경자동차의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구본성기자

동 정

위촉식

구본영 천안시장=28일 오전 8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3시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에 참석.

간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28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간부회의

이용우 부여군수=28일 오전 8시30분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보고회

양성평등위원회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심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4일 브리핑실에서 부여군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군은 그동안 군민참여단 등 5개 분야별 주민들과 5차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사업보고회에서는 여성농업인과 귀농여성 지원에 중심을 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만들기, 여성의 쉼터 조성, 장애인 차별 없는 문화관광지 만들기, 아동과 노인 돌봄, 여성의 젠더 리더쉽 강화 등 성평등, 일자리, 안전, 돌봄, 참여 등 5개 영역 61개의 사업을 담은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전문가를 비롯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가, 인권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여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에 의해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여 젠더 의식을 함양,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누리면서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약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부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00일 범죄예방 효과 탁월

서천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속에 신속 대응체계 운영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서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100일 간의 운영기간 동안 30여 건의 수사 영상제공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재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 등 수사목적으로 30여 건의 영상을 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장항항 만조 침수피해 예방, 청소년 탈선방지, 신성리 갈대밭 화재예방, 주취자 교통사고 예방 등 33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현재 서천군은 생활방범카메라 83대를 비롯 시설물관리, 교통단속, 무단투기, 재난재해, 차량방범 등 224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화질 카메라 교체와 관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보강사업을 통해 관제능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서천 만들기를 위해 개통을 앞둔 동백대교에 5대의 CCTV 설치와 범죄예방디자인 셉티드 기법을 적용한 CCTV설치 적정위치를 서천경찰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거쳐 20개소에 25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군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목 개발

신소득작목 발굴 ·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목 재배로 미래전략농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석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여농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대체작목 발굴에 본격 나섰다.

부여농기센터에서는 농업환경, 시설채소, 과수원예, 특용작목 등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지역의 농업환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신품종 도입으로 소득원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0.9℃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평균온도는 세계평균의 2배에 가까운 1.5℃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산물 산지 북상과 과실의 착색불량, 새로운 병해충 발생, 잡초 증가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로 새로운 작목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T/F팀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농업개발 TF팀은 시설채소, 과수, 특용작목 등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현장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아열대작목 황금향, 레드키위, 애플망고, 파파야, 체리, 왕대추, 얌빈, 오크라, 감초 등 여러 가지 작목 중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고 시험재배와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소득작목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보급 시범사업으로 애플망고를 시험재배하고, 체리 비가림시설 및 방풍망조망 등 과수 안정생산 신기술 현장실천 시범사업, 샤인마스캇 등 포도 소비선호 품종 보급 시범,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3년전 대체작목으로 황금향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업인의 따르면 현재 소득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재배할 계획이라고 말해 센터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여군의 발달된 시설농업 특성을 살려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다양한 품종을 확대하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논산 청소년들, 한여름 열기 쏟아냈다

청소년들 꿈과 끼 발산의 장 제12회 논산시 청소년문화제 성료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논산시민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논산시 청소년문화제'가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속에 7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조성과 재능 발휘를 통해 미래의 꿈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는 기간동안 청소년과 시민 5,5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청소년 문화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청소년 문화제는 ▲도전! 나도 K-POP 스타 ▲우리고장 바로알기 역사이벤트 ▲역사골든벨 ▲청관카페 ▲청소년국악제 ▲청소년 연극제 ▲여름밤의 행복음악회 ▲그림 · 글짓기 공모전 및 작품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져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역사이벤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지역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22일부터 2일동안 펼쳐진 '제3회 청소년 연극제'는 관내 5개 학교의 연극반 친구들이 여름방학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전문배우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개 · 폐막식에는 '에이프릴', '키썸', '씨잼', '배드키즈'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까지 이어져 청소년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한 여름밤의 열기를 무색케 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청소년 문화제는 그동안 각 기관, 단체에서 분산해서 열리던 청소년 행사를 통합해 청소년소통위원회, 참여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청소년자치기구가 각 분야에 직접 참여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소년이 주도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청소년 문화제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이 행복한 논산 만들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시설 구강건강관리 실시

서천군보건소, 구강질환 치료 · 중요성 증진하기 위해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구강질환을 치료하고 구강에 대한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2일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시작으로 성도원, 성일복지원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진료에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시설입소자들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로 치과병원 방문이 자유롭지 못해 항상 구강 건강의 위험이 있어 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이동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이동 진료장비를 활용하여 구강검진 및 상담, 올바른 칫솔질 교육, 치주질환(잇몸병)이 있을 경우 스켈링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치아건강은 건강의 첫관문으로 정기적인 구강질환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치아 잔존율을 높여 음식물 섭취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순영 진료검진팀장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시책 추진은 물론, 장애인들 위해 구강보건사업,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로 지역주민의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시 편리한 상세주소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서비스 시행 및 홍보 박차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붙여쓰는 상세주소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세주소란 "계룡시 장안로 46, 201동 202호(2층)"과 같이 건물번호(장안로 46)뒤에 덧붙는 자세한 주소(201동 202호(2층))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중주택, 고시원, 상가, 공장, 노인복지주택, 업무용 빌딩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 · 단독주택 거주자가 동 · 층 · 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면 · 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시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세주소부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

(042-840-2372)로 문의 하면 된다.

동 정

확대간부회의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28일 오전 8시 30분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2시 고마에서 열리는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 시민설명회에 참석하며, 오후 15시 30분 사곡면에서 열리는 8월 중 읍면동장회의에 참석.

월간 업무계획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28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 업무계획 보고,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행복학습매니저 위촉식,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 오후 4시 대천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별관준공식 참석.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이완섭 서산시장= 28일 오전 11시 음암면 한다리전통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다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새 단장

29일~12월 31일까지 휴관… 전시관 내부 · 편의시설 재정비 등 대폭 개편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한국 최초 구석기 유적에 세워진 공주석장리박물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관하고 대대적인 새 단장에 나선다.

이는 2006년 9월 개관 이후 2011년, 2012년 2차에 걸쳐 소규모의 부분적 리모델링을 실시한 이래 5년만이다.

석장리구석기유적은 사적 334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우리나라에 구석기가 처음으로 발굴, 조사, 연구된 모범적인 유적지로도 유명하며, 최근에는 석장리구석기축제 등이 각광받으며 전국적으로 약 15만명 이상이 찾고 있는 공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석장리박물관은 본관 전시관과 석장리 발굴조사를 이끌었던 파른손보기 교수의 기념관, 체험학습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전시리모델링은 본관과 파른 손보기 기념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사업면적은 1256㎡ 규모에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4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본관 전시관은 상설적인 전시기능을 가진 곳으로 석장리구석기의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1전시, 일반적인 구석기의 상식을 볼 수 있는 2전시로 크게 구분된다.

1전시에서는 1964년 한국 최초 구석기유적이 발굴되던 순간을 실체크기의 모형들을 활용해 당시의 생생한 발굴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연출과 함께 발굴 도구와 자료들을 최신기법을 활용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시된 유물보다 더 많은 석장리 출토 유물을 대거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석장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 주목하고, 2전시에서는 일반적인 구석기의 주제, 즉 진화 손의 사용 불의 사용 등을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눈에 보여줄 계획이다.

석장리박물관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단편적인 전시연출보다 비좁은 전시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최신 기법의 인터렉티브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기획 중이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석장리와 구석기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가 되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해 기념품과 수유실, 휴게공간도 조성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시는 전시실이 휴관하는 동안 석장리박물관 방문 관람객들을 위해 야외 유적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며, 9월부터 임시 전시와 유적 해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임시전시공간을 조성해 운영하는 한편, 가족관람객들을 위한 체험도 상설화해 전시관 휴관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주=정상범 기자

서산시 테러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실시

각종 테러 발생 시 신속 ·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서산시가 지난 24일 시 종합운동장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으로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 발생에 대비해 민 · 관 · 군 · 경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기르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육군 1789-1대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서산소방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서산의료원 ▲중앙병원 ▲한국전력서산지사 ▲서해도시가스 등 11개 기관 · 단체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 훈련은 적 특작부대 3명이 사회혼란 및 남한탈출을 목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테러를 감행해 인명피해와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군 · 경에서는 테러범을 진압하고 폭발물을 제거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를 후송했다.

이어 시를 비롯한 민 · 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수거, 전기 및 가스 공급 등의 긴급 복구를 했다.

시는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을 둔 이번 훈련으로 테러 대비 대응체계 확립, 실전대응 · 초동대처능력 강화 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종 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남성퇴직자들의 노후 삶을 대비하고 독신거주 남성 등 가사기술이 필요한 남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조리실습실에서 진행하는 요리교실에 초급 7~8기 40명, 중급 20명 등 모두 60명의 50~60대 아빠부터 미혼남성들까지 참여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조리기술 습득을 위해 매우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실은 식단 구성과 건강한 식품선택 요령, 보관법과 혼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밑반찬과 국, 찌개, 간식 등의 조리법은 물론, 직접 만든 요리를 서로 나눠 먹으며 맛도 평가하는 등 서로 모르는 아빠들 간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되고 있다.

신재규 사회복지과장은 "요리교실이 가족 간 관계 회복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성들의 노후 삶을 대비하고, 행복한 평등가정을 유도하며, 올바른 식문화 형성과 함께 가족 친화적,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 =김태선기자

서산 문화회관 기획공연 25년사 전시회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개관 25주년을 맞아 첫 회부터 현재까지 무대에 올렸던 기획공연 25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회상! 포스터로 만나는 기획공연 25년사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비 700만원을 지원받아 기획된 이 전시회에서 개관 이래 25년간 무대에 올랐던 기획공연의 포스터 15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문화회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당시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해소에 크게 기여한 성과와 시간을 빛바랜 기획공연의 홍보포스터와 연계시킨 또 하나의 창작 전시회로 평가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의 포스터를 데이터화해 영구기록물로 보존할 계획" 이라며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당시의 기쁨과 감동을 회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00년도에 건립된 서산시 문화회관은 매년 10~20회 가량의 기획공연을 선보여 현재까지 공연 횟수는 180회에 이른다.

올해는 신년음악회, 뮤지컬 레미제라블, 연극 라이어 등 마니아층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믿고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해수욕장 · 해양스포츠 · 휴양림 · 냉풍욕장 등

올 여름 뜨거웠던 날씨만큼,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보령의 여름도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대천해수욕장은 빅데이터로 분석한 여름 인기여행지에서 현대엠엔소프트가 운영하는 내비게이션인 '맵피'는 2년 연속, '카카오네비'는 첫 1위에 선정되는 등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는 대천해수욕장이라는 공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집중호우, 봄철부터 지속된 가뭄, 해외여행 급증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년을 맞은 제20회 보령머드축제가 유료체험 입장객 5만3072명과 외국인 62만2000명 등 모두 568만8000명이 참여하며 대성황을 이뤘고, 최대 규모인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3종, 카이트보딩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26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청소년과 관광객, 시민 모두가 해양축제에 푹 빠졌다.

웅천 무창포해수욕장과 독산해변도 33일간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요원 등 1일 평균 74명이 근무하며 모두 119만4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만1000여 명 보다 약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57일에서 33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 폭죽 · 노점상 밀착 단속, 관광객과 함께하는 비치클린업 타임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운영되는데 일조했으며, 11년 연속 인명 무사고라는 대위업도 달성했다.

지난해 폐갱도 보강(30M)과 냉풍 인공터널 리모델링(200M), 냉수체험시설, 주차공간 확장(5000㎡), 관리사무소 및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새롭게 단장한 보령 냉풍욕장은 이글대는 폭염에도 항상 13도를 유지해 피서객들에게 오싹한 시원함을 선사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까지 갖춰 25일 기준 17만2000명이 방문하며 지난해 8월말 15만300명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천해수욕장의 관광 포인트인 백사장과 바다 절경을 한껏 감상할 수 있도록 신 공법으로 전국 최초 바다위에 설치한 스카이바이크는 지난해 1만4649명이 이용하며 1억1598만원의 수익을 내는 등 관광 히트상품으로 등극했고, 올해는 많은 홍보와 입소문을 통해 이용객이 무려 245% 증가한 3만5911명, 2억9092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만3세) 이용 무료, 폐광지역 주민 대상 주말 감면 확대라는 복지혜택도 제공했다.

성주산자연휴양림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성수기로 운영됐으며, 3만3242명이 이용해 1억1100여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고, 물놀이장을 비롯한 시설물의 청결 관리와 야영장 예약시스템은 이용객 편의를 더욱 높였다는 분석이다.

또 원산도, 삽시도, 호도, 고대도, 외연도 등 보령의 섬 지역 관광객도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해운과 한림해운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도서주민을 제외한 입도객은 6만4316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남포 용두해변은 37일간 남포면 직원과 특전동지회에서 일평균 13명이 근무한 가운데 1만6229명이 방문하며 소규모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원산도 오봉산 해변과 청라 명대계곡, 성주 심원동 · 먹방 계곡, 미산 백제계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금산인삼관 새단장 오픈

유산적 가치 재조명 · 다양한 정보 제공

금산인삼관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24일 문을 열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공사는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1년 4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지상 1~2층 인삼의 정보를 관람객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문방향 변경, 냉 · 난방시설 및 계단보완 등 접근과 편의성를 도모했다.

1층 금산인삼역사관은 금산인삼의 역사, 금산인삼농업 전통재배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복장유물로 발견된 천년인삼과 고려청자 철채퇴화삼엽문매병(鐵彩堆花蔘葉文梅甁) 재현품을 특별 전시, 시선을 끈다.

2층 인삼과학관의 경우 인삼의 종류 및 제조과정, 인삼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체득토록 했다.

또한 일상 속에 필요한 인삼제품들을 아파트 구조로 꾸며진 모델하우스에 전시, 생활 가까이에서도 인삼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삼산업관은 세계인삼, 국내인삼, 금산인삼 제품 전시, 이 · 미용제품 및 금산인삼검사소에서 검사된 제품 소개로 비교를 통한 금산인삼의 효용성에 한발 다가서도록 했다.

3층 인삼음식관에는 모형을 활용한 다양한 인삼음식을 망라하고 있으며, 약초관은 금산약초 및 약초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토록 꾸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금산인삼의 농업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9월22일부터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 기자

공주시 정안면 직원 친절교육

진솔하고 행복한 대화로 후배 공무원 격려

공주시 정안면(면장 최인종)은 지난 24일 조동수(전 신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초청, '선배 공무원에게 듣는 친절교육'을 통해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행복한 대화로 후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정안면 시책인 대민만족 허심탄회 직원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선배 공무원의 공직 생활 가운데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린 대화를 통해 고충을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정안면 직원과 새마을 부녀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에서 얻은 작고 소소한 일상을 통해 느낀 감성과 역경을 진솔하게 들으며 대화와 웃음 속에서 잔잔하게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펼친 조동수 강사는 2009년 공주신월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 공주문화원 운영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2016년 10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생활 속 작은 영웅 14인에 선정된 바 있다.

최인종 정안면장은 "매월 다양한 내용의 직원친절교육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직원들이 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수제 레몬청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는 8월 24일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여성경로당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제 레몬청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은 피로회복 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감기예방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레몬을 다듬고, 썰고, 설탕에 재우며, 따뜻한 정을(情) 전하고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는 매달 부리면 어재리 여성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금산=전정만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태성(임호)의 말에 충격받은 은솔(엄채영)은 도망치다 청계천에 빠진다. 달순 생각에 청계천변에서 술을 마시던 분이(김영옥)는 은솔을 발견하고 달순으로 착각해 데려가고, 윤재(길정우)는 약속장소에서 오지 않는 은솔에게 실망한다. 그리고 연화(박현정)와 금선(정영숙)은 은솔이 실종되어 큰 충격에 빠지는데...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 30분)

달님은 세나가 재희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자신도 그 자리를 빼앗고 싶어진다며 세나를 도발하고, 세나는 재욱에게 신제품개발을 핑계로 선호와 데이트하러 다니는 달님을 단속하라 충고한다. 한편 선호는 달님의 변호를 맡았던 정훈에게서 4년 전 달님의 자백을 유도해 누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것이 바로 세강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 왕은 사랑한다 (MBC 오후 10시00분)

떠나려는 산(윤아)을 잡기 위해 원(임시완)은 성죽재 사건의 재조사를 시작하고, 린(홍종현)은 자신의 형 왕전(윤종훈)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밝히려 한다. 한편, 원성(장영남)은 은영백(이기영)의 재산을 갖기 위해 산을 탐내고, 원과 단(박환희)의 혼담을 깰 계책을 찾아내는데...

케이블 명화

▲ 본 레거시 (OCN 오후 7시00분)

5년 만에, 더 완벽해져 돌아왔다!

액션 블록버스터의 바이블, '본 시리즈' 네 번째 작품 <본 레거시>!

음모는 더 거대해지고, 액션은 더 거칠어졌다!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진행중인 아웃컴 프로그램를 통해 '제이슨 본'을 능가하는 최정예 요원으로 훈련 받은 애론 크로스(제레미 레너). CIA의 트레드스톤과는 달리 '아웃컴' 요원들은 국방부에 의해 훈련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으면서 위험성이 크고 장기적인 기밀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훈련받았다 '제이슨 본'에 의해 CIA의 트레드스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아웃컴 프로그램 역시 보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프로그램의 수장인 '바이어'(애드워드 노튼)는 각국의 모든 1급 요원들은 물론, 아웃컴 프로그램을 가장 잘 알고있는 연구원 '마르타'(레이첼 와이즈)까지 제거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한다. 하지만 제거된 줄 알았던 '애론 크로스' 가 요원들로부터 그녀를 구해내고 거대한 음모의 표적이 된 두 사람은 목숨을 건 반격을 시작하는데...

▲타이타닉 (채널CGV 오후1시50분)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당대 꿈의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탐사대들에 의해 세상에 발견되면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극적인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17세기 엄격한 사회 질서에 숨막혀 하는 미국 상류층 로즈(케이트 윈슬렛)는 사교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와 권위적인 재벌 귀족 약혼자와 함께 미국으로 향하는 '타이타닉 호' 1등실에 승선한다. 배가 출발하기 전 부두의 선술집에서 도박으로 운 좋게 '타이타닉호'의 3등실 티켓을 얻은 가난한 화가 잭(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역시 아슬아슬하게 배에 승선한다.

첫 눈에 1등실의 로즈에게 반한 잭은 갑판에서 우연히 바다로 몸을 던지려 하는 로즈를 발견하고 재치 있는 언변과 행동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1등실의 저녁식사에 초대받게 되고 서로에게 끌리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후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타이타닉호' 침몰조차 갈라 놓을 수 없었던 세기의 로맨스가 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5:10 착한여비서의 목적
6:20 우는남자
8:20 NCIS 시즌14
12:20 킹스맨:시크릿에이전트
14:50 구해줘
16:10 국제시장
18:40 본레거시
21:3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PART2

◈ 채널 CGV
2:20 혹성탈출:진화의 시작
4:10 혹성탈출:반격의 서막
6:20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8:50 원티드
11:00 대호
13:50 타이타닉
17:30 매트릭스3:레볼루션
20:00 잭 더 자이언트 킬러
22:30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 Mnet
6:00 눈덩이 프로젝트
7: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8:30 WANNA ONE GO
10:10 내 사람친구의 연애
11:30 아이돌학교
13:2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20 Mnet SHOW ME THE MONEY 6
16:30 2017 울림PICK
17:40 Daily Music Talk (SMS)
18:30 M COUNTDOWN
20:30 아이돌학교
22:20 Mnet SHOW ME THE MONEY 6

스포츠 · 레져

◈ MBC 스포츠플러스
10:00 2017 메이저리그
12:00 제9회 전국생활체육 대 장사씨름대회 하이라이트
14:00 2017 메이저리그
16:00 불멸의 명승부
17:30 코리안 메이저리거 투데이
18:00 2017 KBO 퓨처스리그
21:00 야구 중심
22:00 <당구스페셜>2017 포르투 3쿠션 당구월드컵 준결승 · 결승

◈ SBS 스포츠
9:00 17-1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58 17-18 EPL 주간 핫 매치
12:12 2017 양궁 월드컵 1차 리커브 하이라이트
14:07 2017 월드그랑프리 여자배구
15:33 2014 구리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16:43 17-18 EPL 하이라이트
17:44 2017 KBO리그 KIA 명승부 BEST
18:50 주간야구
20:16 2017 베이스볼S 다이제스트

◈ 온스타일
6:00 하백의신부
8:25 바디 액츄얼리
9:15 아담의 팩트폭격
9:40 뜨거운 사이다
11:00 섬총사
12:30 까칠남녀
13:15 바디 액츄얼리
14:10 원나잇푸드트립:먹방레이스
16:35 SNL 코리아9
18:00 매력티비
18:35 까칠남녀
19:20 바디 액츄얼리
20:10 아담의 팩트폭격
21:30 바디 액츄얼리
22:15 까칠남녀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만만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0: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 테마 기행>지중해의 푸른전설, 몰타 - 1부/2부
12:30 <세계 테마 기행>지중해의 푸른전설, 몰타 - 3부/4부
14:00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낙원, 고릉고사>5부- 위험한공존
15:00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낙원, 고릉고사>6부- 사자의 포효
16:00 개코원숭이의 여왕
17:0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17:30 TV 동물농장
18:4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19:15 <와일드 옐로스톤>1부-늑대의 겨울

음악 · 애니

◈ MBC 뮤직
7:50 Good Morning MBC MUSIC
9:00 나 혼자산다
10:35 아이돌TV
11:30 Show Champion
13:00 어서와~ 한국은처음이지?
14:25 무한도전
16:00 쇼! 음악중심
17:10 순위의재구성
18:40 더보이즈 꽃미남분식집 우리는 영업중

◈ 애니맥스
7:00 넥소나이츠시즌3
8:00 지오메카 비스트가디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1:00 꼬마버스 타요4
12:00 아울은너무이상해
13:00 안녕 자두야
14:00 헬로카봇 5
15:00 파파독
16:00 안녕! 괴발개발
17:00 터닝메카드W 시즌2
18: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 JTI 재능방송
6:00 퍼피구조대
7:00 넥소나이츠S3
8:00 지오메카 비스트가디언
9:00 파워캐치 원다Part 2
10:00 텔레몬스터
11:00 꼬마버스 타요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애슬론 또봇 3
16:00 소피루비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터닝메카드W 시즌2
19:00 마음의 소리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명품역사관 정도전 11:50 숨터 12:00 KBS뉴스 12 1: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50 팔도밥상 스페셜 2:20 중계방송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토론 3:30 101세의 프러포즈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 5 (수화방송) 5:30 동물의 세계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7:00 KBS 뉴스 7 7:35 우리말 겨루기 8: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0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특선다큐 2차 대전 비사, 히틀러의 원자폭탄개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 그여자의 바다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살림하는 남자들 12:00 학교 2017 2:00 KBS 뉴스타임 2:10 영화가 좋다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VJ 특공대 6:00 KBS경제타임 6:30 2TV생생정보 7:50 이름 없는 여자 8:30 글로벌 24 8:55 제보자들 10:00 학교 2017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6:00 MBC 뉴스투데이 7:50 훈장 오순남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00 MBC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50 왕은 사랑한다 12:00 MBC정오 뉴스 12:20 문화사색 1: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2 1:55 중계방송 국민의 당 대표 후보 토론회 3:30 드림주니어 스페셜 4:00 지오메카 4:30 꾸러기 식사교실 5:00 MBC 뉴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돌아온 복단지 7:50 MBC뉴스데스크 8:55 [UHD]별별며느리 10:00 왕은 사랑한다 11:10 오빠생각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8:30 달콤한 원수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2:00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3: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4: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5:00 SBS 오뉴스 6:10 조작 6:45 생방송투데이 8:00 SBS8뉴스 8:55 생활의 달인 10:00 조작 11:1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6:30 메디컬 인 7:00 은혜로운 말씀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8:00 섹션뉴스 8:30 풋볼 클리닉 9:00 행복비나리 10:00 김영진의 집대성 11:00 열전 동네방네 12:00 굿뉴스 1:00 시청자 뉴스 1: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30 CMB 집중토론 3:00 굿뉴스 4:00 잘 먹 GO 잘 살GO 4:30 건강 플러스 5:00 김영진의 집대성 6:00 뉴스와이드 7:00 시청자뉴스 7:30 메디컬 인 8:00 집중토론 9:30 뉴스와이드 10:30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 11:00 다이어트 미	6:10 EBS 특별기획 통찰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7:30 로보카 폴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45 코코코 다코 9:00 캐니멀 9:30 원더볼즈 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12:40 지식채널 e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빵빵 요리버스 17:05 딩동댕 유치원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1 18:05 플라워링 하트 18:20 톡! 톡! 보니 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톡! 톡! 보니 하니3 18:45 똑똑! 우리 몸X파일 18:55 톡! 톡! 보니 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대전대 펜싱부 황현일 선수, 남자 에뻬 종목 단체전 동메달

대만 타이베이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전대학교 펜싱부가 다시 한 번 메달 획득 소식을 알렸다.

25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에 따르면 펜싱부 소속인 국가대표 황현일 선수(사회체육학과 4학년, 23 · 사진)가 지난 24일 대만 타이베이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자 에뻬 종목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재원(청주대), 장효민(한국체대), 박민우(세종시체육회) 등과 함께 에뻬 단체전에 출전한 황현일 선수는 4강에서 만난 헝가리에 19-25로 분패했음에도 불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45-40으로 승리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총 2명의 국가대표를 배출시킨 대전대학교 펜싱부는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오상욱(사회체육학과 3학년, 22) 선수에 이어 황현일 선수까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펜싱 강호 대학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전대 도선기 감독은 "많은 이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오상욱 선수와 황현일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남을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대만 타이베이서 개최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정복기자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직원들 '사랑나눔 헌혈' 동참

혈액 수급 돕기 위한 사랑나눔 헌혈 행사 가져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 직원들은 지난 25일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헌혈 행사는 국가 혈액 사업에 동참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졌다. 남부평생학습관 10여명의 직원들은 논산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에 참여한 김기원 총무부 실장은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제 헌혈을 해보니 나의 건강상태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에 기쁘다."고 말했다.

김용진 관장은 "헌혈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작은 계기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무지개 컵밥 만들기' 요리교실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편식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른 식생활 교육을 시작으로 채소의 중요성과 골고루 먹어야하는 이유 등 청소년들이 궁금했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컬러푸드를 이용한 요리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켜 무지개 컵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편식습관이 개선되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 할 수 있다.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청소년 드림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진로지도, 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특화도서관 시범 운영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7년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독서심리를 특화한 송곡도서관은 ▲그림책으로 가족과 소통하기(성인 15명) ▲멋진 예비엄마 DR라인의 행복한 그림책 이야기(임산부 20명) ▲날아라 삐약이(관내 초등 1,2학년), 은행나무길 그림책 마법사(유아 20명)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독서 Q&A를 운영한다. 또한 탕정온샘도서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 웹툰을 특화해 웹툰반(초등 /중고등 각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산시립도서관은 이와 함께 특화분야에 따른 월별 추천도서를 전문가가 추천하여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 역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게 되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독서심리 분야의 경우, 연령별 · 심리 상황별에 따른 도서추천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에 따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서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운영될 이번 특화 프로그램은 오는 29일(화)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홈페이지(http://asclasan.go.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표이사 안 경 호
www.sw-motors.com

레저용품 전문점
MSL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사이클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모터보드 · 윈드서핑 · 골프용품
대표이사 최 재 종
www.msleports.co.kr

대전대 CRC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금산에서 다문화 가정 위한 의료봉사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융합지식기반 글로컬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황석연 교수)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삼남제약 강당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목면 여성자원봉사회, 독거노인 가정 청소봉사 실시 청양군 목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차순옥)는 지난 24일 화양2리에 사는 독거노인 최모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주는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밭대 대학특성화사업 자체평가 워크숍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8월 24일과 25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2017학년도 대학특성화사업 자체평가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신풍면, 다문화가정 '행복한 동행' 지난 22일 관내 다문화가정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사진 촬영 및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건양대 의과학대, 고교생과 함께 하는 STEM CAMP 개최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STEM 특성화사업단(CK-1)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전메디컬캠퍼스 해부학교실 실습실과 보건학관 강의실에서 'STEM Camp'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 롯데장학재단, 충남대 학생에 장학금 수여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김윤중)과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6일,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우리지역의 충남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배재대 · 대전시 · 대전시교육청 함께 6년째 진행…고교생 대상

자기주도 영어학습코칭 프로그램 성과

배재대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6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 계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부활동인 '대전 자기주도 영어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26일 수료식을 가졌다.

대학 TESOL · 비즈니스영어학과 주관으로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에는 제일고와 구봉고 등 6개 고교와 대안학교인 트윈사성학교에서 추천된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26일 시작됐다.

프로그램 참가 고교생들은 6주 동안 11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영어학습 코치로 참가하였다.

고교생들은 5-6명이 1개 조로 나뉘어 매주 토요일마다 배재대에서 3시간씩 대학생 코치 11명으로부터 영어회화 활동과 영어독해 코칭을 받았다.

특히, 2명의 영어 원어민으로부터 다양한 활동의 영어회화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웠다. 또한 평일에는 형과 언니 같은 멘토들에게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컴퓨터 영어낭독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학습과정을 스스로 점검해 나갔다.

TESOL · 비즈니스영어학과 김정태 교수와 조영우 교수가 매주 자기주도학습법과 영어학습법 특강을 진행하였다.

평일에는 코치들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코칭하였고,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영어실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매일 학습일지를 작성해 자신의 학습과정을 스스로 점검케 하였다.

김가영 대표코치는 "고교생들의 니즈를 맞추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꿈과 자기주도학습의 이유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일고 정세리 학생은 "영어문장 청킹 방법과 영어회화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코치님과 함께 한 영어수업에서는 문장 해석과 단어 유추를 하면서 영어실력을 늘려갔다"고 말했다.

TESOL · 비즈니스영어학과장 김정태 교수는 "영어학습코칭을 통해 고교생들에게 영어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학교가 교육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동정 ● ● ●

시군직장회장회의

이경용 직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협의회장 = 28일 오전 11시 아산 시골밥상 마고에서 시군직장회장회의를 개최.

백석대 제7대 총장에 장종현 박사 선임

백석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장종현 박사가 선임됐다.

백석대는 8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장종현 박사를 제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장종현 총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백석대학교의 설립자이자, 대학의 전신인 천안대학교의 1대, 3대 총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김정환기자

태안군, 장학기금 기탁 '훈훈'

지역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태안군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군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리조트(골든베이골프앤리조트)는 지난 25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와 조창호 태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 500만 원을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기탁했다.

조창호 태안사업본부장은 "지역 학생들의 성장이 태안군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내년에도 장학금 기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제회(시멘트 혼합재) 판매업체인 ㈜대상(대표 한상각)도 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한상각 대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한국영상대 - 퍼니콘(Funnycon)

영화산업 진흥 위한 산학협력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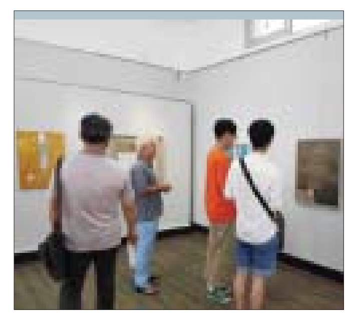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는 지난 25일 독립영화 디지털배급사 퍼니콘(대표 김나영)과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학 제작 독립영화 배급, 유통, 판매 등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용 DB구축 ▲영화제작 관련 교육과정개발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콘텐츠 배급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영상대는 재학생들에게 영화제작 일련의 과정에 참여해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IPTV, 모바일 등 각 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대학에서 제작된 단편영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유재원 총장은 "대학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학생들의 뛰어난 영상 제작 능력을 알리고 싶다."며 "상호간 협력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임립미술관, 공주국제미술제 무료 미술체험



임립미술관에서는 오는 8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 특별행사로 2017 제14회 공주국제미술제 주민참여행사 "돌아온 허수아비" "복주머니 만들기" "사탕이 열리는 나무" 미술체험을 무료로 진행하고, '찾아가는 미술관-행복심기 유유유 프로젝트 임립미술관 전시'와 '특별기획 임현빈 개인전'에 대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전시해설도 함께 진행한다.

공주국제미술제 주민참여행사는 작가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미술작품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을 들녘의 곡식을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던 우리 농촌의 진풍경을 만들어냈던 '허수아비 만들기'와 귀중품을 담아 고이 간직하거나 지니고 다녔던 '복주머니 만들기'는 우리의 전통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설치와 공예 미술로 재현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임립미술관 홈페이지 www.limlipmuseum.org 또는 공주국제미술제 홈페이지 www.kgia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긴급지원비 전달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온양2동 위기가장 의료비 지원

대한적십자 충남지사(지사장 유창기)는 지난 24일, 온양2동(동장 박찬중)의 위기가장에게 긴급지원비를 전달했다.

이날 대한적십자 아산지부 동별 회장 5명과 온양2동 적십자 이명숙 회장이 함께 참여해 긴급 의뢰 대상자 김 모씨(남,49)에게 이백오십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지원받은 김 모씨는 "생계가 어려워 삼백만원이라는 큰 병원비를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술 후 진료도 받으러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한적십자의 지원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경제적 부담감도 덜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찬중 동장은 "복지위험가구에 긴급의료비를 지원해 주신 대한적십자 충남지사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지역민과 소통

건보공단 대전유성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김재경)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승래 의원은 김재경 지사장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40주년의 성과와 현안 및 유성구 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중 특히 대전유성지사, 유성구청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구축한 '경로당 정보화 시스템'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조 의원은 민원실에서 방문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하며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투 논단

불신사회와 전수조사 시대

김 헌 태
논설고문

대한민국의 불신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 유럽산 고기의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상술과 수준이하의 늑장대응행정의 백미를 보고 있다. 당연히 식품 안전도 믿지 못하고 용품의 안전도 믿지 못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먹걸이에서 생필품 전반에 불신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살인적인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가 어느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문재인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에 살충제 계란까지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며 그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먹어도 괜찮다는 발표까지 하는 데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 발표한데로 먹어도 괜찮으면 왜 폐기하고 전수조사하고 난리를 피우는가 묻고 싶다. 어불성설이자 이율배반의 모순이라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는 화학물질 생리대까지 난리가 아니다. 여성연대를 중심으로 집단소송도 전개되고 있다. 피해여성들이 자진해서 소송비도 내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전수조사라는 말이다. '모조리 조사' 한다는 뜻이다. 살충제 계란에 등장한 전수조사가 또다시 생리대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살충제 계란처럼 부적합 업체나 제품들이 추가로 들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난번 살충제 계란의 전수조사과정에서도 ' 눈 가리고 아웅하다' 들통이 나 재조사를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안의 중대성도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다. 살충제계란의 전수조사가 끝나고 추가로 적발된 3곳을 포함하여 52곳의 농장명단이 부적합으로 공시되고 있는데도 시중에 나온 계란들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유럽의 ' E간염 소시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감과 공포에 떨고 있다. 최근 유럽 언론들은 영국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수입산 돼지고기와 이를 가공한 육가공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들어 판매 중인 소시지와 햄이 주범으로 지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유럽산 햄과 소시지의 유통을 잠정 중단하고 제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E형 간염은 오염된 물 ·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증상은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7~10일 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타난다. 초기에는 황달이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가려움증 같은 증상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식품이어서 더욱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이다. 대형매장에 먹음직스럽게 즐비한 가공육 제품들이다.

당연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3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원료로 만든 가공육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스페인산 하몽과 살라미 등 유럽산 가공육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철수시키는 장면을 보면 지난번 살충제계란 치우는 장면을 재현하는 듯하다. 왜 이런 모습을 소비자인 국민들이 지켜보아야 하나 싶다. 살충제 계란도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유럽에서부터 촉발하여 불통이 튀더니 이제는 육가공제품까지 그러니 유럽만 쳐다보며 식품안전을 논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는 시중의 반응들이다. 어쩌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이 이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답답하다. 유럽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먹고 있을 살충제 계란과 오염 육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한 식품안전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는 적폐청산대상이다.

식품안전에서부터 생필품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불신의 대상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조차도 엉터리이니 소비자인 국민들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 불문가지이다. 엉터리 인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방조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면 새판을 짜야 한다. 임시미봉책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겠지 하는 꼼수가 있다면 이런 사고방식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로 그곳이다.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정도로 엉터리로 식품안전과 생필품의 안전을 외쳐 왔는지 명명백백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바로 여기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금 식약처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난 형국이다. 국민 불신과 불안의 확산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면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인데 어찌 조용한 것을 보면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 분명 먹걸이를 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슨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다. 차제에 시중에 유통되는 의심 품목 모두를 '모조리 조사' 즉 '전수조사' 하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은 '전수조사 시대' 이다.

사 설

임계치 넘어선 '가계부채'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급증세를 이어가 1천4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났다니 걱정이 크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급증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가계신용의 추가적인 증가는 경상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65.9%를 넘어선 2011년 2분기부터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 대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왔고 대출규제가 포함된 부동산 관련 대책도 연달아 발표해왔지만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 · 월세 가격 상승, 저금리 장기화, 소득개선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급증세를 막는 방안과 함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가계의 소비 위축을 방지할 방안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총량관리 목표설정 기간을 가급적 길게 잡아야 하며 가계의 소득 증가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인구 반토막' 재앙 막을 특단의 대책 세워야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可妊) 기간에 낳는 자녀 수)을 1.12명으로 전제할 경우, 2085년에는 국내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62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당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암담한 시나리오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급전직하하는 출산율을 보면 이조차도 희망 섞인 전망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추락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요즘 통계청이 발표하는 출산율 통계에는 '사상 최저' 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는다.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줄어든 2만8천900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도 18만8천여명에 그쳐 올해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40만명선이 무너질 게 확실시된다. 1970년대 100만명에 이르렀던 연간 출생아 수가 불과 50년 만에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초저출산은 세계적으로도 최악 수준인데, 더욱 문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 정부도 저출산 완화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기는 하다. 이미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대책을 내놨다. 또한 지난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이 심각해 경제성장이 염려될 지경"이라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담당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역대 정부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결여된 중구난방식 탁상행정의 필연적인 결과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비로 2006년부터 80조원을 썼으며 2020년까지 108조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돈만 들인다고 출산율 1.5명 목표가 달성될 리 만무하다. '인구 반토막' 은 이미 눈앞에 다가온 대재앙이다. 더 늦기전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거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 고

'핵추진 잠수함' 지지와 단합이 필요하다

문 근 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핵무기 운반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그것이다. 이 중 SLBM이 맨 늦게 개발되었지만 전략폭격기와 ICBM에 비하여 훨씬 위협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전략폭격기와 ICBM은 비행 중 장시간 위치가 노출되어 중간에 요격되기 쉬운 반면, SLBM은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모르며, 적의 핵무기에 의해 자국의 영토를 공격받은 후에도 물속에서 보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무려 500㎞까지 비행시킴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어떻게 막아 내야할까? 그 답은 선진국의 운용술을 들여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잠수함들은 상대국 SLBM탑재 잠수함이 출항할 때부터 수중에서 추적 · 감시 한다.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인공위성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공격하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핵무기도 잠수함으로 추적 감시하다가 유사시 격침시킨다는 것이다.

냉전 시에 들키지 않고 3주 이상 소련 잠수함을 추적한 미국 잠수함 함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작전이다.

수중 감시 및 추적 작전을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의 속력보다 2~3배(최소 1.5배)의 속력을 끊임없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이 속력을 낼 수 없다. 핵 추진 잠수함만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극복해야 할 걸림돌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 수준이고,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이며, 셋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국가적 의지다.

핵추진잠수함의 핵심기술은 원자로제작기술과 잠수함 건조기술이다. 한국은 현재 독자모델 원자로를 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독자 건조중인 3천톤급 잠수함도 2018년 띄울 예정이므로 기술력은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약간의 난관이 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규정과 한 · 미원자력협정에서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AEA 규정에도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있다. IAEA 규정상 우라늄을 핵무기가 아닌 다른 용도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사찰을 면제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함의 추진체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처럼 핵무기 제조불가 수준인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IAEA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2015년 개정된 한 · 미원자력협정인데 이때 양국 간 협의에 의해 한국도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 및 재처리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였지만 군사적 전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SLBM은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더 큰 만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여 SLBM위협을 제거해준다면 미국으로서도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합의가 되면 원자력협정 재 개정없이 미국에서 공급한 20%의 우라늄을 잠수함에 사용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제3국에서 20%의 우라늄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국제법상 위배는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인데,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미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SLBM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은 고사하고 이를 추적 · 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못 한다는 것은 자주국방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SLBM무력화를 위하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민적 지지와 단합이 필요할 할 때이다. 자구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추진해야한다.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조심

기 고

박 상 군
청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각급 학교의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할 때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2,000건이 발생하여 14,000명이 다쳤으며 주로 개학기인 8월중 하교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중 발생하였다.

차도로 보행하고 우산을 숙여 쓰고 보행하거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많다.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때에는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중인 어린이를 발견하면 잠깐 멈춰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행되어야 하는 통학버스지만 우리나라에선 시간에 쫓겨 일시정지,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을 빨리 태우고 내리는 일에 급급하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정지하지 않은 버스를 타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차시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어린이가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놀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어린이와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

넷째,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어린이는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녹색불이 켜지는 순간이나, 보행신호가 끝나가는 와중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어 사고가 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으면 예측출발을 하지 말고 꼬리물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먼저 안전수칙 준수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내자.

오늘의 소사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 순 용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san Forestry Cooperative
금산공판장G마트